A QUALITATIV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TRANSITION OF YOUNG ADULTS TO THE ADULT GROUP I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FOCUSING ON PERSPECTIVES AND PRAXIS OF THE THEOLOGY OF HOSPITALITY AND POSTCOLONIALISM

한국 감리교회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

환대 신학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관점과 실천을 중심으로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ungchan Hong

May 2025

This Practical Research Project, completed by

Sungchan Hong

under the direction of his faculty committee and approved by its members,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Faculty Advisors

Namjoong Kim, Chairperson

Hyun Sun Oh

Dean of the Faculty

Andrew Dreitcer

May 2025

Abstract

A Qualitativ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Transition of Young Adults
to the Adult Group i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Focusing on Perspectives and Praxis of the Theology of Hospitality and Postcolonialism

Sungchan Hong

This research project seeks to explore the fundamental meaning of the shared and distinct experiences that young adults in Korean Protestant churches encounter during their transition into the Young Adult Ministry. To achieve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individuals in this transitional phase at K Church, and the resulting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through a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findings revealed that young adults faced various conflicts during their transition into and adaptation within the Young Adult Ministry. These included ambiguity conflicts, gaps in care, communication breakdowns, a lack of expertise, and issues related to normalization. Such conflicts were observed to weaken their faith and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ir departure from the church.

This study interprets these findings through the lenses of postcolonialism and hospitality, proposing alternative approaches. Ultimately, the aim is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an interdependent, hospitality-oriented community within Korean Protestant churches, where young adults can successfully navigate the transition into the Young Adult Ministry and continue their faith journey with stability.

KEYWORDS: Postcolonialism, Hospitality, Qualitative Research, Eucharist, Young People-Young Adults

국문 초록

한국 감리교회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
환대 신학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관점과 실천을 중심으로

홍성찬

본 연구 프로젝트는 한국 개신교 교회의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공통된 특별한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 교회에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는 청년-청장년들과 심층면담을 하였으며,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청장년들은 청장년부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모호성의 갈등, 돌봄의 사각지대, 소통의 단절, 전문성 부족, 규범화와 같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들은 한국 개신교 교회 청년-청장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 프로젝트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 프로젝트는 한국 개신교 교회가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호의존적이고 환대 지향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환대, 질적연구, 성찬, 청년-청장년

Summary

The Protestant Church in Korea experienced significant growth in membership from the 1980s to the 1990s; however, since 2010, this trend has begun to reverse, with a notable decline in numbers. This is especially evident in the youth demographic, which has been departing from the church in increasing numbers. Factors contributing to this trend include South Korea's low birth rate, the rise of individualistic values, the proliferation of variou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nd widespread distrust in organized religion. In response, Korean churches have implemented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programs. Nonetheless, the trend of youth disengagement continues to accelerate.

During my seven years of ministry as the pastor responsible for the youth department at K Church, I consistently observed young people transitioning away from the church as they moved into the young-adult department. This transition prompted me to closely examine their experiences during this pivotal phase. I was motivated to understand how these individuals could sustain their faith journeys. Through conversations with several young people and young adults in transition, I began to gain insight into their challenges. However, I quickly recognized that my understanding was limited and that a more comprehensive reflection was necessary.

During this period, I enrolled in the Doctoral Program in Practical Theology for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a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Through the lens of postcolonial practical theology, I was able to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nflicts that arise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young-adult department. I also recognized that fostering a hospitality-oriented community could potentially address and heal the conflicts experienced by young people, allowing them to embrace the increasingly diverse lives they lead.

To attain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mmon experiences that young people encounter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I conducted a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study, which is a recogniz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or this project, I selected ten young adults at various stages of this transition to participate in in-depth interviews. The research received approval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a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ensuring the ethical protection of the participants involved.

The data collected from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procedure established by Paul F. Colaizzi, with repeated evaluations carried out until theoretical saturation was achieved. This rigorous process led to the extraction of 26 meaningful statements, which were then organized into 13 thematic categories and ultimately distilled into five key categories: Conflict of Ambiguity, Blind Spot of Care, Breakdown of Communication, Lack of Professionalism, and Normalization.

The findings from this analysis were interpreted through the lens of postcolonialism. Additionally, I proposed alternatives rooted in hospitality theology to address the conflicts identified during the analysis. These alternatives include the practices of 'small group Eucharist' and 'small group Agape Meal.' Through these practice-oriented approaches, I aimed to explore how the church can foster a pastoral care environment that accommodates the diverse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young people, enabling them to continue their faith journeys.

As I embarked on this project during my Doctoral Program in Practical Theology a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the healing and transformation I have personally experienced will continue to influence my pastoral ministry in the future. Postcolonialism and hospitality theology have consistently prompted me to reflect deeply and engage meaningfully in my practice. In this era of increasing diversity, I aspire for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o cultivate

a hospitality-oriented community that warmly welcomes individuals from various life backgrounds and embraces one another unconditionally. My hope is that this project will contribute, even in a small way, to guiding the Korean church away from a focus on external growth metrics and toward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 grounded in hospitality, love, and friendship, reflecting the life of Jesus.

국문 요약

한국 개신교 교회는 1980 년대부터 1990 년대까지 교인수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2010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과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 다양한 여가 및 문화활동, 종교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청년층의 교회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개신교 교회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교회 이탈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나는 K 교회에서 7 년 동안 청년부 담당목사로 사역하는 동안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특별히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있는 청년-청장년들과의 대화 속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의 현상일 뿐이었고, 보다 통합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갈등의 치유와 변혁을 위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별히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실천신학을 통해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환대 지향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점점 다양해지는 청년들의 삶을 포용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갈등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공통된 특별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들(Qualitative Research Methods) 중 하나인 현상학적 질적 연구(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를 진행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10 명의 청년-청장년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질적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연구 참여자들이 윤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콜라이지(Paul F.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분석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를 통해 26 개의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하고, 이를 13 개의 주제 묶음으로 만든 후, 최종적으로 5 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5 개의 범주는 모호성의 갈등, 돌봄의 사각지대, 소통의 단절, 전문성 부족, 규범화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관점으로 해석하였고, 환대 신학을 토대로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현상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은 '소그룹 성찬'과 '소그룹 애찬'이다. 이러한 실천 중심의 대안들을 통해 다양한 삶의 정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목회적 돌봄의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나 자신의 치유와 변화를 앞으로의 목회 현장에서 계속 이어갈 것이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 신학은 끊임없는 삶의 고민과 실천을 나에게 요청하였다. 다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층적인 삶의 정황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는 환대 지향적 공동체를 한국 개신교 교회가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 개신교 교회가 더 이상 외적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와 사랑 그리고 우정에 기반한 예수 닮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본 프로젝트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목차

Contents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연구 배경(Research Background)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K 교회에서 12년간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 중 청년부를 담당했던 지난 7년 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목회적 과제는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원활하게 이동하고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며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처음에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신앙생활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전과 같이 성실하게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미안하였다. 또한 청년부 담당목사로서 청장년부에 소속된 이들을 심방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1]

나는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는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교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년들은 삶의 전환기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목회적 돌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고 싶어 하였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의 구조를 찾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이었다. 현재 K 교회는 청장년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에

[1] 현재 K 교회는 6명의 부목사가 교구, 부서, 기관, 사역팀을 나누어 사역하고 있다. 구분된 각각의 사역의 영역에 대해 담당 부목사의 책임과 역할을 존중하고 있고, 특히 교구 사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각 교구에 속한 성도들에 대한 심방과 상담, 그리고 돌봄은 전적으로 담당 부목사가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목사가 타교구의 성도들을 심방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대한 구체적인 기대를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K 교회는 2023년도부터 청장년 교구를 신설하였고, 청장년 세대를 위한 교육과 모임 그리고 청장년 가족수련회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청장년을 위한 기도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교회를 찾아 떠나려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물론 교회를 이동하는 것이 한 사람의 신앙에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교회가 청년들의 필요를 경청하고 공감하여 적절한 신앙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이들은 훨씬 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서 이러한 청년들의 상황과 필요를 교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많은 한계를 느꼈다.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된 생각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 무디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갈등의 치유와 변혁을 위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의 문제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었다.[2] 양적 연구를 통해서는 충분히 알 수 없었던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해서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2년 간의

[2] 나는 현재 사역중인 K 교회의 후원과 배려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목회적 역량 강화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학업이었지만, '갈등의 치유와 변혁을 위한 실천신학'이라는 주제는 나에게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주었다. 나의 목회적 상황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한국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들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환대'의 개념을 통해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과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질적 연구이다. 심층면담을 통해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경험을 경청하고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장년부로의 전환기에 있는 청년들이 겪는 현상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목회적 돌봄과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데 본 프로젝트의 연구 목적이 있다.

B. 문제 제기(Statement of Issues)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을 통해 각 개체교회가 청년회, 청장년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등 다양한 자치기관을 조직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이러한 자치기관들은 교회의 사역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구조로써,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적 성장을 돕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K 교회는 청년부를 20~35세까지의 미혼자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4] K 교회에서는 35세 미만의 청년이라도 결혼을 하면 청장년부로 소속이 바뀌게 된다. 반면에 35세 이상이라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년부 회원이 된다. 표면적으로는 나이를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결혼 여부로 부서를 구분하고

[3]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74조(자치기관 설치) 개체교회 안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등의 자치기관을 조직하여 담임자의 지도하에 선교, 봉사, 친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4] K교회 청년부는 자체적으로 만든 회칙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 회칙의 제2장 조직과 회원 제4조에 따르면, '이 회의 연령은 청년 20~35세까지로 한다.(단, 본인이 원할 경우 35세 이상의 미혼자도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있다. 이러한 K 교회의 상황은, 최근 한국 청년들의 결혼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부서 구분 기준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 청년들의 결혼 연령 시기는 과거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5] 또한 1인 가구로 살기 원하는 비혼주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6]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부서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K 교회의 규정은 청년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K 교회의 청장년부는 자녀를 둔 초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목회적 돌봄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는 청장년의 경우에는 청장년부에서 진행되는 모임, 교육, 행사에 대해 공감대를 갖기 어렵다. 특히 자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중심의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청장년부에 소속되는 것에 부적절함을 느끼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즉,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청장년부에서 제공하는 목회적 돌봄이 자신의 삶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소속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블라인드 그룹이 발생하기도 한다. 블라인드 그룹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혼자, 35세 이상의 비혼자, 비혼주의자 등이다. 이혼한 사람의 경우 결혼을 한 순간부터 청년부에 소속될 수 없으며, 동시에 이혼을 한 순간부터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청장년부에도 소속될 수 없다. 또한 35세 이상의 비혼자는 연령 제한으로 인해 청년부에 소속될 수 없고,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장년부에도

---

[5]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통계청, last modified March 3, 202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

시기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3년
초혼연령(남/여)	27.79 / 24.78	29.28 / 26.49	31.84 / 28.91	33.23 / 30.78	33.97 / 31.45

[6] 다음 백과사전, "비혼," accessed January 12, 2025,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420.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결혼하지 않기로 한 사람. 비혼을 선택한 사람을 비혼주의자라고 한다. 미혼보다 주체적인 단어로 결혼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아닌 개인 선택에 달린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담겨 있다.

소속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이로 인해 교회 안에 '블라인드 그룹'이 형성된다.

나는 K 교회에서 4년간 교육부 담당목사로, 그리고 이어서 7년간 청년부 담당목사로 사역하면서 대부분의 청년들과 10년 이상의 긴 시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다. 오랜 시간 청년들의 삶의 고민과 신앙적인 갈등을 함께 나누며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결과 청년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고민이나 교회에 대한 요청을 나에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청장년부로 이동해야 하는 시점에서 자신들이 받게 될 목회적 돌봄에 대해 많은 우려와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청장년부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일부 청년들은 청년부에 남아 있으려고 하거나 새로운 교회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나에게도 교회 내에서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교회측에서는 청년부 담당목사인 내가 청년들을 청년부에 계속 남겨두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나는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청장년부에 잘 정착하고, 적절한 목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교회측에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이러한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나는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성공적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내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교회와 청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C. 논지와 토론(Thesis and Discussion)

현대 사회에서는 청년들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 및 가정에 대한 가치관 또한 다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K 교회는 여전히 결혼을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초혼부부에게 맞춰진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하였다. '청년들은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청년들을 청장년부로 이동시키는 K 교회의 부서 이동 규정에는 어떤 모호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이들은 어떤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가?,'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블라인드 그룹은 어떤 이들인가? 이들은 그 속에서 어떤 무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가?,'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갖는 기대와 바람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프로젝트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겪는 다양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해석하였다. 특히,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공통된 특별한 경험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이 교회에서 보다 원활히 수용될 수 있도록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의 개념을 활용하여 결과들을 해석하고, 또한 이 해석을 토대로 적절한 실천적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교회가 청년들의 다원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모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D.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Definition of Concepts)

나는 아래에서 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하였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는 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용어이지만,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여기서는 본 프로젝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청년,' '청장년,' '목회적 돌봄'에 대해 정의하였다.

나는 본 연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의(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계획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이 청년과 청장년으로 혼재되어 있어, 대상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이후 내용에서도 두 대상을 혼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전반에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제안을 지도교수로부터 받았다. 나는 이러한 지도교수의 제안에 공감하였고, 이에 따라 '청년,' '청장년'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목회적 돌봄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1. 청년(Young People)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다.[7]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태어난 날이 아닌 태어난 년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생각하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K 교회 청년부 회칙에서는 '20세부터 35세까지'의 성도를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청년 규정과 K 교회의 청년 규정은 표면적으로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차이점이 있다.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청년이라고 규정한다. 반면에 K 교회에서는 19세 이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한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청장년으로 규정한다.

또한 K 교회는 35세 이상이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년으로 규정한다.[8] 그래서 현재

---

[7]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accessed November 17, 2024,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undefined. 청년기본법에 대한 2023년 9월 22일 시행령 제 1장 제 3조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8] 35세 이상의 미혼 청년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청년부에 속할 수 있다. 35세 이상의 미혼 청년이 더 이상 청년부에 소속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무적의 성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K 교회 청년부에는 20세부터 47세까지의 미혼 청년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결혼한 청년들은 청장년부로 바로 소속이 바뀌지 않고, 결혼한 다음 년도부터 청장년부로 소속이 바뀐다. 그래서 현재 K 교회의 청년부에는 결혼했지만 아직 청장년부로 소속을 옮기지 않은 '결혼한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본 프로젝트에서는 'K 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청년이라고 표현하였다.

2. 청장년(Young Adult)

대한민국에서 청장년이라는 용어는 특정 법령에 의해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주로 청년과 장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하지만 K 교회에서는 청년과 장년의 사이 세대로 청장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K 교회는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하면 청년에서 청장년부로 소속을 이동하게 된다.[9] 하지만 K 교회의 청장년부는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모두 K 교회에 등록된 교인일 경우에만 소속이 가능하다. 부부 중 한 명만 K 교회의 등록 교인일 경우에는 청장년부에 소속되지 못하고 일반 지역 교구에 소속 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청장년이라는 용어는, 20세부터 49세까지의 결혼한 성도 중 부부가 함께 K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3. 목회적 돌봄(Pastoral Support)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목회적 돌봄이라는 용어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필요를 돌보는 목회 활동을 의미한다. 목회적 돌봄에는 예배, 심방, 상담, 교육,

[9] K 교회는 청장년 선교회라는 기관과 충성교구라는 청장년 교구가 존재한다. 청장년 선교회는 49세 이하의 남성으로만 구성된 기관이며, 충성교구는 49세 이하의 결혼한 부부들로 구성된 교구이다. K 교회는 2023년부터 청장년세대의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성교구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기존 조직체인 청장년 선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K 교회 내에서도 '청장년 교구,' '청장년 선교회,' '청장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결혼한 부부 속회로 구성된 충성교구(청장년 교구)를 청장년부라고 표현했다.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 교회가 사용하는 목회적 돌봄이라는 용어에는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라는 위계적인 관계 설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에게 일방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목회적 돌봄을 실행해왔다. 이러한 목회적 돌봄의 이해는, 교회 내 권력 관계, 위계적 구조, 주체와 객체의 설정과 같은 식민주의적 억압과 갈등을 한국 개신교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본 프로젝트에서는 ‘목회적 돌봄’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먼저 목회란 예수가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는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이 사회에서 소외 받고 차별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다. 따라서 목회란 성서가 말하는 이 시대의 나그네, 고아, 과부가 누구인지를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 것이다. 누가 억압 당하고, 누가 침묵을 강요 받고, 누가 타의에 의해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교회 공동체가 찾기 위해 질문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치유해가는 과정이 목회이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에서 돌봄은 목회자가 성도에게 일방적으로 신앙적 필요를 제공해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변화와 치유를 경험해야 한다는 상호 의존적인 의미로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목회적 돌봄’이라는 용어는, 목회자가 성도에게 제공하는 일방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상호 의존적 돌봄, 참여적 돌봄, 협력적 돌봄을 의미한다.

E. 청중(Audience)

나는 본 연구의 청중을 세 그룹으로 정하였다. 첫 번째 청중은 젊은 세대의 감소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한국 개신교 교회의 목회자들이다. 이들 중 청년 담당 목회자는 청년들을 청장년부로 원활하게 이동시켜야 하며, 청장년 담당 목회자는 청년들을 청장년부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이끌어야 하는 담임목회자 역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첫 번째 청중에 포함한다.

두 번째 청중은 한국 개신교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의 리더십도 중요하다.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과의 협력 없이는 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청장년들이 부서를 이동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해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교회는 청년-청장년들을 위해 적절한 목회적 돌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청중은 한국 개신교 교회의 청년-청장년 성도들이다. 사회에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도, 교회에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년-청장년 세대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년-청장년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필요를 인식하고 그것을 교회에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 교회 청년-청장년 성도, 그 중에서도 30~40세의 성도들을 본 연구의 세 번째 청중으로 정하였다.

F. 연구의 한계와 제한성(Scope and Limitations of the Project)

본 연구에서는 K 교회의 30~40세의 청년-청장년 성도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을 통해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심층면담을 통해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청년-청장년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목회적 돌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10명이라는 제한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한국 개신교 교회 청년들의 모든 상황을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K 교회는 청장년 세대가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향이 뚜렷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교회 인근에

위치한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 근처에 거주하며 K 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직하며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K 교회의 청년–청장년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한국 개신교 교회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으로 일반화되거나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목회자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과 동일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목회자인 연구자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다. 반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보다 심층적이고 상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제한성과 한계, 그리고 가능성은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Chapter Ⅱ

질적 연구 방법과 절차

(The Method and Procedur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A. 연구 방법: 현상학적 질적 연구(Research Method: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한국 개신교 교회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통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질적 연구를 선택하였다. 일반화를 목적으로 대다수를 통한 연구를 하는 양적 연구보다는 특별한 현상과 경험을 하고 있는 그룹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하기에는 질적 연구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10] 또한 질적 연구는 연구에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상황–연구 주제가 되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이해하고 있는지를 연구자가 최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 구성해내는 시도이기 때문이다.[11] 따라서 나는 질적 연구를 통해 한국 개신교 교회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목회적 돌봄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탐구하였다.

현상학은 사람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서, 그 속에 나타난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철학적 방법론이다.[12] 나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에 근거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사람들의 생활세계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형이상학적 전제나 심리적 왜곡, 개인적 편견, 혹은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말 그대로 '현상'에 대한 연구이다. 질적 연구

[10]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4), 146.
[11]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22), 37.
[12] 서경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23), 121.

방법의 한 형태로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가 관심을 갖는 현상이란 바로 참여자의 경험이다.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나,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자의 경험을 현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13] 또한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주제가 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연구자의 선입견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14]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단순히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공통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현상과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경계선에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경청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B. 연구 참여자(Research Participants)

이 연구를 위해 나는 먼저 K 교회의 성도 중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는 이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먼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청장년들과, 결혼을 하고 청장년부로 이동한지 5년 이내에 있는 청장년들로 구분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K 교회에서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구분하는 기준인 35세 이상의 미혼 남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경계선에 위치한 연령대인 30~40세 사이의 성도들 중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첫째,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 둘째, 배우자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셋째, 이혼한 성도,

---

[13]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60.
[14]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139.

그리고 넷째, 자녀가 없거나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성도 등.

또한, 위와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성도들을 K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해 온 성도와 성인이 되어 K 교회에 정착하게 된 성도로 배분하여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포괄적으로 탐구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본 교회 출신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15] 최종적으로 10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을 정리한 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나이	성별	결혼	자녀	소속	출신교회
연구 참여자 A	37	남	유	무	청장년부	K 교회
연구 참여자 B	30	여	유	무	청장년부	K 교회
연구 참여자 C	32	여	유	무	청년부	타교회
연구 참여자 D	39	남	유(이혼)	무	청년부	K 교회
연구 참여자 E	33	여	무(예정)	무	청년부	타교회
연구 참여자 F	29	여	무(예정)	무	청년부	K 교회
연구 참여자 G	38	남	무	무	청년부	K 교회
연구 참여자 H	38	여	무	무	청년부	K 교회
연구 참여자 I	35	남	무	무	청년부	K 교회

[15]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생 혹은 유년기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한 교회를 본교회라고 표현한다.

연구 참여자 J	32	여	무	무	청년부	타교회

나는 사전 연락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 심층면담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고, 심층면담에 사용할 '심층면담 가이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하여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 시간은 연구 참여자들의 일정에 최대한 맞추었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익숙한 K 교회 내 청년부실과 상담실에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자세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심층면담 진행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심층면담의 내용을 녹음하고 필사하여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모든 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심층면담 녹음 파일과 필사본은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이고, 연구를 마친 후에는 해당 내용을 모두 파기할 것에 대한 약속도 연구 참여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심층면담 내용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표기할 것을 구두와 서면으로 약속하였다.

심층면담 환경과 관련해서, 나는 연구 참여자들이 긴장하거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심층면담 시작 전에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동안 일상의 대화를 나누었고, 심층면담 중간에 얼마든지 심층면담을 중단하거나 휴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언제든 원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없이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줌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해주었다.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연구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번호:2024-005)을 받았고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검토를 통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 연구가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치유하고 함께 변화시켜가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 상호 유익성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교회가 청년-청장년 세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해 주었다.

C. 연구 진행과정(Research Procedure)

존 크래스웰(John W. Creswell)은 질적 연구란 연구자가 주요한 연구 도구가 되어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16] 질적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자료수집의 방법은 인터뷰, 관찰, 그리고 문서자료의 분석이다.[17]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인 현상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경청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긴 인터뷰 내용이 연구 데이터이다.[18]

이에 따라 나는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심층면담을 하는데 있어서, 면담기법으로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19]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

[16] 이미나, 김동일, 김병남, et al., *질적연구방법* (서울: 동문사, 2022), 19.
[17]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57.
[18]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149.
[19]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Ⅱ: Mo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326.

또한 개방형(open-ended) 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응답내용이나 방향이 사전에 결정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다.[20]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질문 내용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과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은 그 내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수용될 수 있다는 신뢰를 연구 참여자가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이야기 없이는 수행되기 어렵다. 또한,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단될 수도 없다. 연구자는 끊임없이 연구 참여자와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 형성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21]

나는 심층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더욱 풍부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22] 예를 들어, 나는 연구 참여자가 말하는 내용에 '아, 그랬군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와 같은 말로 호응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연구 참여자가 하는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경청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심층면담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는, 이전까지 연구 참여자가 했던 내용을 되짚어주어 심층면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심층면담 질문 가이드를 사전에 전달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 가이드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

[20]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68.
[21] 이미나 et al., *질적연구방법*, 17.
[22]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68-69.

<표 2> 심층면담 질문 가이드

구분	질문 내용
1	언제부터 K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K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당신은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연령, 희망거주지역, 배우자의 종교, 자녀계획, 결혼희망여부 등)
3	결혼을 기준으로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나누는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30 대 이상의 비혼자로서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5	35 세 미만의 기혼자로서 청장년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6	자녀가 없는 기혼자로서 청장년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7	당신은 청년부(혹은 청장년부)에서 제공하는 목회적 돌봄에 만족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	당신은 본인이 원하는 목회적 돌봄에 대해서 교회(혹은 목회자)에 요청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9	청년부(혹은 청장년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자신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고, 좋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10	청년기 이후에 다니게 될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시겠습니까?
11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특별한 경험과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환원이란 현상에 대한 통념, 고정관념, 선입견 등을 더 이상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체의 판단을 유보한 채 오로지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함을 의미한다.[23] 현상학적 환원은 종종 에포케(epoche),[24] 괄호치기(bracketing),[25] 판단 중지(suspension) 등으로 지칭된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체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존의 생각을 버리는 '판단 중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26] 나는 연구 참여자의 체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환원(reduction)'[27]의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하였다. 또한 감정이나 이성에 의한 추리가 아니라 직관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하려는 '본질직관(本質直觀)'[28]의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는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과 이론적 견해를 배제하기 위해 판단 중지 항목을 만들었다. 판단 중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 판단 중지 목록

구분	판단 중지 목록
1	청년들은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2	청년들은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

[23] 서경혜, *질적연구방법론*, 135.

[24] 에포케(epoche)는 '판단의 보류'를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 회의론자들에 의하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그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등의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진리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25] 괄호치기(bracketing)는 사물에 대한 일상적인 판단을 중지하고 일단 괄호 안에 묶어 무효화 함을 의미한다. '괄호침,' '괄호묶기' 등으로도 번역된다.

[26]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144.

[27]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145.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의 지향성' 행위를 멈추고 현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리려는 연구자의 태도를 '환원(reduction)'이라고 부른다. 환원이란 연구자가 인식에 떠오르는 것을 받아들이고, 숙고하고, 상상하고,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현상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8]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145.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환원'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본질직관'이 가능해야 한다. 본질직관이란 판단 중지를 통해 감성이나 이성에 의한 추리가 아니라 직관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하려는 일체의 특수한 노력이다.

3	30 대 이상의 비혼 청년들은 청장년부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소외감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4	청년들은 현재의 청장년부 운영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심층면담은 먼저 간단한 음료와 다과를 함께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로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다시 한번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가 면담에 응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사전에 제공한 질문 중에 이해하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서 연구 참여 동의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녹취에 대해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하였고, 면담 도중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면담은 면담 가이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였고, 필요에 따라 반구조화 형식을 바탕으로 캐묻기를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의 녹취는 연구자가 사용하는 개인 핸드폰인 애플(Apple Inc.)사의 아이폰 14(iPhone 14, MPUR3KH/A)로 진행하였다. 녹취 파일은 동일한 핸드폰과 연동된 iCloud Drive에 ‘논문인터뷰’ 파일을 만들어 저장하였다. 녹취록은 네이버 클로바 노트(Naver Clova-note)[29]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 텍스트화 시켰다. 이 과정에서 약 85% 이상의 완성도로 자동 텍스트화시킬 수 있었고, 녹취 자료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으며 녹취록의 완성도를 높였다. 심층면담은 총 11시간 43분 동안 진행되었고, 녹음한 내용을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두

[29] 클로바 노트(http://clovanote.naver.com)는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 기록 서비스로, 회의나 강의, 상담, 인터뷰 등 녹음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녹음한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시켜 주기 때문에, 음성 기록을 텍스트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어플리케이션이다. 네이버 클로바 노트는 2024년 12월 7일 현재 무료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필사하였는데, A4용지에 글자크기 10pt, 장평 100%, 줄간격은 160%, 여백은 기본으로 설정하여 총 168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현상학적 질적 연구 분석 중 하나인, 콜라이지(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분석 절차는, 개방코딩을 통해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내고,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들을 분석하여 개념화, 범주화하여, 각각의 응답자가 제시한 철저한 기술의 의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30] 이러한 분석 방법은,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특별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경험을 넓은 차원에서 탐구하여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목회적 돌봄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콜라이지의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31]

<표 4> 콜라이지의 자료 분석 절차

구분	내용
1	연구 자료 전체를 검토하는 단계 : 자료 전체의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2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하는 단계 : 개별적인 자료를 하나씩 다시 검토하면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진술들을 추출해낸다.
3	의미형성 단계 : 각각의 유의미한 진술을 토대로 그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명백하게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그들이 암묵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다.

[30]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107.
[31]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연구* (파주: 한길사, 2014), 47.

4	앞 단계의 작업을 한 차례 더 반복하면서 그것을 통해 드러난 의미들을 '주제 묶음'(clusters of themes)으로 정리한다. 이 단계에서는 의미들을 통해 주어진 것을 토대로 그들과 더불어 주어지는 주제들을 파악해야 한다. 일단 주제들이 확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자료를 보면서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해 나간다.
5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을 시도한다.
6	이러한 '포괄적인 기술'을 연구 주제의 근본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명료한 진술로 바꾼다.
7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물어가면서 자신의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연구자는 이러한 사실을 연구 결과에 포함시킨다.

나는 이러한 분석 절차를 통해 심층면담 녹취록 자료를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줄 단위로 분석했고, 이후 코딩 작업을 통해 주요 범주와 개념 및 연구 주제들을 도출하는데 이르렀다. 여기서 이론적 포화상태란, 연구자가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32] 그리고 코딩은 분석하려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텍스트에 대한 생각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텍스트를 색인화하거나 분류하는 방법이다.[33]

D. 연구 분석과 결과(Research Analyses and Results)

자료 수집과 그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그 연구가 얼마나 좋은 연구인지를 파악하는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의 개념이 존재한다.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타당성은 연구가 연구의 목적대로 진행되었는가와 관련되어 있고, 신뢰성은 연구가

[32]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4.

[33] Graham R. Gibbs, *Analyzing Qualitative Data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trans. 김종훈, 조현희, and 엄수정 (서울: 박영스토리, 2022),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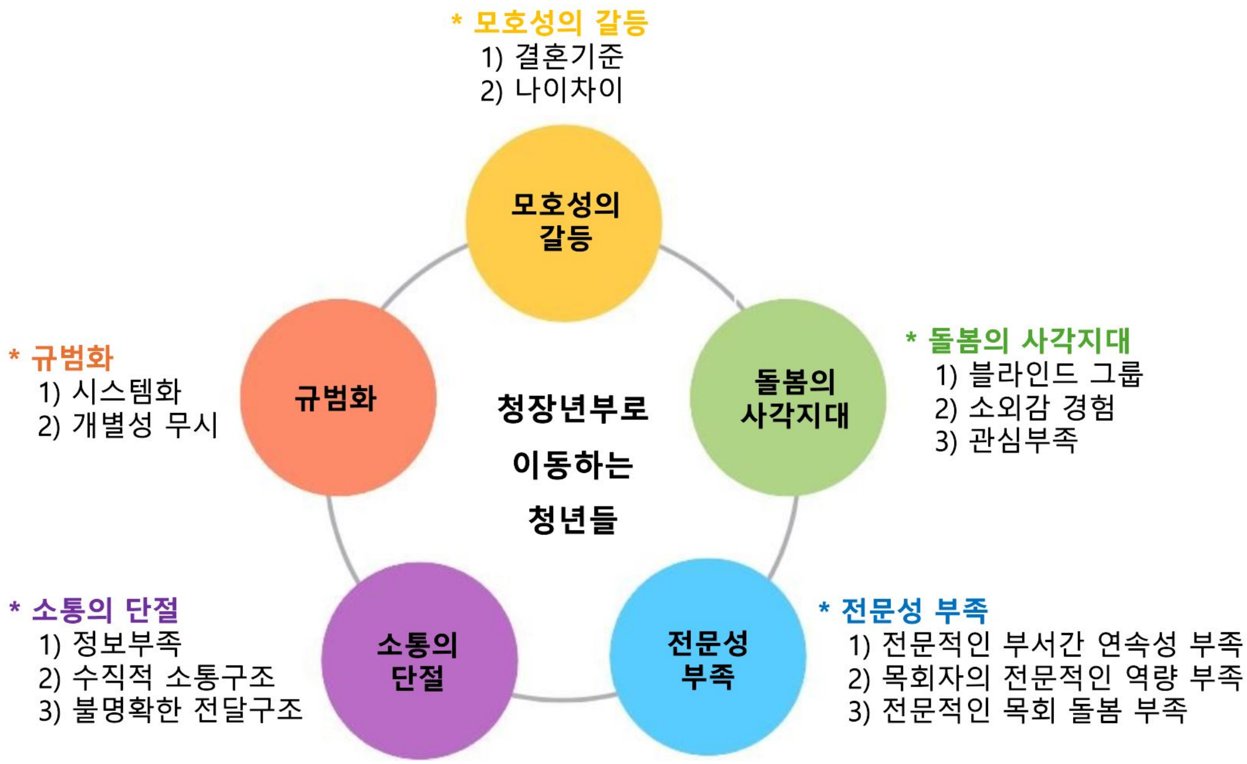
얼마나 정확하게 진행되었는가로 이해할 수 있다. 타당성과 신뢰성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질적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타당성의 확보방안인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은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 사용, 복수의 연구자 참여, 다양한 이론 활용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높아지게 하는 연구 검증 과정이다.[34]

나는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0명의 연구 참여자와 10명의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면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 후, 이들의 경험을 녹취, 필사, 촬영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여기서 프로그램 참여자란, 본 프로젝트의 실천적 대안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소그룹 성찬'에 참여한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신학의 이론으로 기술하고, 분석한 자료들을 해석하였다.

10명의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필사하여 콜라이지의 분석 절차에 따라 26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13개의 주제 묶음으로 분류한 뒤, 최종적으로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5〉와 〈표6〉과 같다.

[34]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

<표 5>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표 6> 콜라이지 분석 절차에 따른 결과 분석

범주	주제 묶음	의미 있는 진술
모호성의 갈등	결혼기준	- 지금은 결혼을 진짜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1 인 가구와 비혼주의 청년들도 있어서 그 규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 비혼주의자가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결혼이라는 게 요즘은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나이차이	- 저 같은 경우에도 제자였던 애들이 이제 청년부에 다 올라오는 상황인 거죠. - 나이가 35 살 이상의 청년들이 계속 청년부 활동을 하면 좀 모호한게 사실 있잖아요.
돌봄의 사각지대	블라인드 그룹	- 제가 알고 있는 형 누나들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못한 사람들은 그 어딘가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소외감 경험	- 그런데 그 가족수련회에서 지칭하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약간 마음이.. 온전히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이제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는 분들은 부부가 함께 청장년에 올라가게 될 텐데, 저 혼자 외딴 섬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사실 너무 싫어요.
	관심 부족	- 담임선생님이 있다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 청장년으로 올라가면 약간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소통의 단절	정보 부족	- 제가 그런데 정말로 청장년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 제가 청장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광고나 포스터를 통해서 보는게 전부에요.
	수직적 소통구조	- 저희는 그냥 일방적인 목회적 돌봄만 받고 있는데 충족이 되지 않죠. - 다 가로막혀요. 아예 통로가 없어요.
	불명확한 전달구조	- 담당 목사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까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전문성 부족	전문적인 부서간 연속성 부족	-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연계하는 연결고리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이동했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 두 부서 간에 자연스러운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목회자의 전문적인 역량 부족	- 청년과 청장년에 대한 전문가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 목회적 돌봄을 교육으로 치환했을 때 만족하지 않아요. 교육을 해주는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목회 돌봄 부족	- 좀 세분화해서 타깃을 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 저의 욕구와 매칭이 안되는 일을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다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규범화	시스템화	- 한 영혼의 삶을 존중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꾸려가는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큰 틀 안에 젊은 사람들이 투입되는 느낌이 강해요.
	개별성 무시	- 청장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제 이름보다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가니까 상대적으로 점점 소극적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 청장년 수련회를 가면 너무 자녀가 있는 가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1. 모호성의 갈등(Conflict of Ambiguity)

심층면담을 통해 발견한 첫번째 범주는 '모호성의 갈등'이다. 현재 K 교회는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부서를 이동할 때 결혼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청장년들의 다양한 삶의 정황으로 인해 모호성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 결혼 기준(Marriage Standards)

청년들의 결혼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나이를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하는 규정과 결혼을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하는 규정 사이에서 청년들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혼을 기준으로 청년부와 청장년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갈등을 경험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 [연구 참여자 A]
>
> *비혼주의자가 점점 많아지는 현실에서 결혼이라는게 요즘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적 사항에 불과한데, 부서를 결혼으로 구분 짓는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 [연구 참여자 F]
>
> *청년에서 청장년으로 올라갈 때의 기준이 결혼이 된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왜 결혼을 하면 청년부에 있을 수 없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희망적금,' '청년 주택' 이런 것도 다 나이로 나누지, 결혼 유무로 따지지는 않잖아요.*
>
> [연구 참여자 H]
>
> *저도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걸 기준으로 청년부랑 청장년부를 나누는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결혼을 진짜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1인 가구도 많고, 기독교인이지만 비혼주의인 청년들도 있고 해서, 지금에는 그 규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A]와 [연구 참여자 H]는 청년들의 결혼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과 가정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교회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모호성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년들의 상황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교회는 결혼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 짓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 F]는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을 나이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결혼이라는 기준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연구 참여자 F]가 언급한 '청년 희망적금'[35]과 '청년 전세임대'[36]의 자격 요건에는 결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교회가 결혼이라는 공통된 상황을 가진 구성원들로 부서를 구분하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상이한 조건과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모호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결혼을 기준으로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구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 [연구 참여자 C]
>
> *어쨌든 무엇을 정할 때는 모두가 동의할 만한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각 교회마다 정하는 거잖아요. 작은 교회는 이런 기준의 거의 없을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교회의 사이즈에 맞게 정해진 규정이라고 생각해서 뭐 좋다, 나쁘다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
> [연구 참여자 G]
>
> *저는 전반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조금 구시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사나 대화의 주제가*

---

[35] KB국민은행, "KB청년희망적금," accessed November 21, 2024,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11087. KB국민은행(http://www.kbstar.com) 홈페이지에서 'KB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을 확인해본 결과, 나이요건(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소득요건이 있음을 확인했다. 결혼 유무는 가입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6] LH청약플러스, "청년 전세임대," accessed November 21, 2024, https://apply.lh.or.kr/lhapply/srch.do. LH청약플러스(http://www.apply.lh.or.kr)의 홈페이지에서 '청년 전세임대' 자격요건을 확인해본 결과, 나이요건(19~39세)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결혼유무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확연히 갈리더라구요.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대화의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구요. 관심사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결혼을 기준으로 부서를 나누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개선할 점은 당연히 있다고 보구요.

[연구 참여자 G]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주제가 주는 공감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장점이 많은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 G]의 비슷한 연령대의 동료들은 대부분 결혼을 한 상황이라, 결혼 이후에 결혼하지 않은 동료들과의 대화 주제가 많이 달라져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다.

2) 나이 차이(Age Difference)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는 청년들은 같은 부서 내에서 나이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면서 청년부 내 구성원들 간에 나이 차이가 점차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K 교회 청년부에서 가장 어린 사람과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의 나이 차이는 28살이다. 이처럼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경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D]

큰 교회들은 청년들을 대학부와 청년부로 세부적으로 나누니까 그들끼리 잘 모이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일단 우리 교회는 그런게 없고 아예 청년부 하나로 뭉쳐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0살이랑 40살이랑 청년부에 같이 묶여 있게 되니까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어린 청년들에게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자였던 애들이 다 올라오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이 형 오빠라고 부르는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막상 그들이랑 사역을 해야 되고, 같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뭔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한발자국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갈등의 상황은 청장년부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비교적 일찍 결혼하여 청장년부로 소속을 이동한 사람은 이미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과 같은 부서에 속하게 된다. 결혼이라는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감대를 갖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 [연구 참여자 B]
>
> *제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청장년부에는 50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보다 더 어린 사람이 청장년부에 들어오게 되면 그 차이가 거의 20살 이상.. 물론 청년부도 비슷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갭이 조금 더 크다고 해야 할까요. 실제로 청장년을 가보니까 그 속에서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K 교회가 결혼을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하는 이유는, 결혼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서 소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서로의 삶을 깊이 공감하며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부서의 구성원들에게 적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결혼하는 시기가 이전보다 더욱 다양해지면서 청장년부 내에서도 나이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 출산, 육아, 자녀의 학업과 입시와 같은 각기 다른 관심사가 다양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청장년 중에는 사회초년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회사에서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때로는 상반된 상황에 있는 구성원들이 있다 보니 오히려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지는 모호성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2. 돌봄의 사각지대(Blind Spot of Care)

나는 심층면담을 통하여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목회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K 교회가 현대 청년들에게 필수조건이 아닌 결혼을 부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니,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청년들은 목회적 돌봄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부서 소속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현상도 있었다. 교회 내에서 제3자, 외부인이

되는 경험을 하였던 것이다.

1) 블라인드 그룹(Blind Group)

[연구 참여자 G]는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선배들 중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G]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청년부에서 활동하기 부담스럽고,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장년부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점차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청년들은 부서를 구분하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교회에서 갈등하며, 점차 사각지대에 놓임을 연구자는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G]의 응답과 비슷한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들은 아래와 같다.

> [연구 참여자 D]
>
> *그러니까 꼭 결혼을 해야만 청장년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못한 사람들은 그 어딘가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계속 청년부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청장년으로 넘어간다고 한들 그들과 대화 주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교회를 다녀야 하는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기준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 [연구 참여자 G]
>
>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점점 세분화해서 특성에 맞게 나누는게 유익할지 아니면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서로를 이해하며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게 좋을지를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두 그룹이 융화되려면, 결혼 안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챙김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형 누나들 중에 결혼을 안하신 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딱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D]는 결혼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혼하여 청장년부로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 청년부에 남아 있었다. 심층면담 진행중 자신의 상황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표현했지만, 위의 진술을 분석할 때, [연구 참여자 D]가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G]는 청년부에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청년들이 점점 교회에서 보이지 않음을 안타까워 했다. 특별히 나는 [연구 참여자 G]가 그 순간에 매우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 G]는 심층면담 중에, 현재 보이지 않는 선배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2) 소외감 경험(Experience of Alienation)

[연구 참여자 B]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청장년부로 이동한지 1년이 지났고, 현재 자녀가 없는 상태이다. 청장년부에서 진행하는 '청장년 가족수련회'에 처음 참여했을 때,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자녀를 둔 부부들에게 맞추어져 있어서 소외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많은 청장년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였지만, 그 중에 자녀가 없는 청장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숙소에 머물러야 하는 소외감을 경험했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소외감을 경험했던 청장년들이 '청장년 가족수련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했고, 참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는 관찰할 수 있었다.

> [연구 참여자 B]
> *청장년 수련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안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순간 갑자기 확 제3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 장면을 관람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럴 대상(자녀)이 따로 없으니까 그 시간에 그냥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가족 수련회에서 지칭하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약간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은 다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이런 식의 교육이니까요. 아, 그때 제가 계속 숙소에만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예배 드릴때는 인원이 훨씬 많았는데, 교육 들을 때는 참여인원이 적은 것을 보니까, 여기에 관심분야가 아니신 분들은 나중에 예배만 드린다거나 이러는 것 같았어요.*

[연구 참여자 H]는 30대 후반의 비혼 청년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청년부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비혼 상태로 청장년부에 소속된다면 어떨 것 같은지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 [연구 참여자 H]
>
> *양면적인게 있을 것 같은데, 부부속회를 보면서 나도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고 대입해볼 수 있는 경험도 될 것 같고, 반대로 그들이 나누는 나눔에 있어서 공감이 크게 안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거기서 붕 떠 있는 모습으로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모였을 때는 그냥 뭔가를 하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마음의 문을 깊이 열고 그 사람들과 일부러 깊이 있게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교회 생활의 하나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응답을 분석할 때, 35세 이상의 비혼 청년들이 청년부에서도 그리고 청장년부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나이를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하면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던 동료들과 함께 부서에 속하여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구 참여자 H]는 결혼 유무의 차이로 인한 단절감을 오히려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특별한 경험을 통해 현재와 같은 교회 공동체의 인식과 인습 하에서는, 결혼을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하든 나이를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하든 소외감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다.

3) 관심부족(Lack of Interest)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교회가 청장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이러한 이유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교육부와 청년부에는 K 교회의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년부는 교회에서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년 세대는 목회적 돌봄을 함께 해야 할 새로운 동역자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청장년 세대에 대한 K 교회의 관심은 미비하다고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가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B]

제가 느끼기로는, 청년부가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었으면 청장년부는 대학생 같아요. 뭔가 틀은 있는데, 물론 권면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자율적인 면이 조금 더 많다고 느껴졌어요. 사실 청장년부를 담당하시는 목회자들이 모든 청장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지 다 보실 수도 없고, 예배에 안 왔다고 해서 청년부처럼 '너 무슨 일 있었니?,' '너 안좋은 일 있니?' 이런식으로 물어보시지는 않잖아요. 저한테 담임 선생님이 있었다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연구 참여자 C]

청년들이 청장년으로 잘 올라가게 하려면 관심을 가져줘야죠. 각자에게 중요한 역할과 자리를 주는 거죠. 아이들은 교회학교가 있고, 청년들은 청년부가 있는데, 청장년은 그런게 없었다는게 충격이었어요. 청년은 청년대로 관심을 갖고 양성하려고 하고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관심을 갖고 양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청장년은 양성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장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그게 예배든 아니면 기관이든, 사역이든, 분명히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마련해주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J]

청장년으로 올라가면 약간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예배 말고는 다른 장치들이 없는 상황이라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와는 달리, 최근에 청장년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을 통해서 교회가 청장년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 A]는 교회에 청장년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 좌절감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청장년부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면서 청장년 세대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 A]

목회자분들에게 저의 고충을 토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몇 번 던져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별적인 요청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가지 이벤트들을 목격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장년들만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거나 그런 거요. 여전히 청장년들을 위한 예배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의 뭔가를 시도하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에 대한 어떤 일말의 가능성들은 보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3. 소통의 단절(Breakdown of Communication)

1) 정보부족(Lack of Information)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청장년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교회로부터 제공 받지 못하고 있었다. 청장년부를 소개하는 자료나 프로그램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먼저 청장년부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부분적인 정보들 만을 얻을 수 있었다.[37] 자신이 속할 부서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부서 이동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막연함, 그리고 이에 따른 불만을 파생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주는 교회를 찾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G]

지금은 사실 제가 청장년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전혀 몰라서 그냥 예상이나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정확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알고 있죠. 청장년 가족 수련회를 한다.. 이런 것들은 예배 광고 때 나오니까 알고 있고, 무슨 프로그램 한다, 누가 와서 콘서트 한다, 이렇게 가족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지속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청장년 담당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잘 몰라서 청장년에 있는 저희 형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청장년 담당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목사님과 대화 나누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청장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게 저한테는 상당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

[37]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연구자의 제안으로 '청장년 교구 소개,' '청장년 속회 소개,' '청장년 리더와의 만남'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3회에 걸쳐 청년부와 청장년부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비록 청장년부로의 이동이 너무 임박한 상황에 진행이 되어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 H]

제가 그런데 정말로 청장년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정말 정보가 부족해요. 사실 제가 청장년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랑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청장년은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고 알텐데 정말 그런 정보가 없어요.

[연구 참여자 G]와 [연구 참여자 H]는 K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청년부에서도 오랜 시간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던 청년들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 H]는 교회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자신들이 이후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부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음을 연구자는 알 수 있었다. 청장년부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청장년부로의 이동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었고, 청장년부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있음을 연구자는 분석할 수 있었다.

2) 수직적 소통구조(Vertical Communication Structure)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가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춰주는 것 보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반대로, 교회가 적절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 받지 못할 때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부서, 교구, 속회, 프로그램을 교회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러한 수평적 소통이 결여된 수직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감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파생되고 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C]

교회가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영향이 많이 미치죠. 목회자에게 뭔가를 말하는 게 어렵고 불편하다면, 그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렵고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만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님을 많이 뵐 수 있어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담임목사님은 실제로 안 그러신

분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교회의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C]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담임목사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좋은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C]는 목회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기혼자인데, 배우자가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서 K 교회 청장년부에 소속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담임목사와의 대화 후에 K 교회에 대해 소속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담임목사와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수평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교회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E]

청년부 안에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더 도전적인 사람이어서, 이전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이런 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런 교육을 해봤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다른 걸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담임목사님에게 전하고 싶었을 때 다 가로 막혀요. 담당 목사님에게서 막히니까 사실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어요. 청년으로서 담임목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목회 돌봄만 받게 되고, 충족이 되지 않죠.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가 원하는 목회적 돌봄이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요. 저도 청장년이 되서도 이 교회에 너무 남아 있고 싶지만, 제가 원하는 목회적 돌봄을 전혀 해주지 않고,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목회적 돌봄을 해주는 데를 가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E]는, 교회의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로 인한 경험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개인 신앙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청년-청장년 세대들이 교회에 소속감을 갖는데 있어, 교회와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구자가 의미 있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젊은 세대들이 너무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내용으로 볼 때, 이들은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의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갈등을 야기시켰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만큼 큰 문제로 느꼈음을 연구자는 분석할 수 있었다.

> [연구 참여자 D]
>
>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해도 사실 바뀌는 게 많이 없고, 결국은 결정권자들은 다 위에 계시니까. 그런데 위에 계신 분들이 생각이 깨어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되게 정적이고 딱딱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게 단점이라고 만 생각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뭔가를 유동적으로 유기체처럼 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는 방해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 참여자 D]는 교회의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 운용과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소수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교회의 일들을 결정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진술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교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불명확한 전달구조(Unclear Transmission Structure)

교회 내 소통 단절의 원인은 정보 부족이나 수직적인 소통 구조에만 있지 않았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이 잘 반영 되지 않는 것이 갈등의 한 원인이었지만, 자신들의 판단과 견해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갈등의 배경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A]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교회라는 곳이 사실 본인이 안 다니면 그냥 끝나는 문제잖아요.

[연구 참여자 G]

담당 목사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사실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안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교회든, 어느 조직이든,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 같은 것들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의견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공식적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소통구조의 차이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답답함과 막연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화되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4. 전문성 부족(Lack of Professionalism)

연구 참여자들은 목회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은 목회자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목회를 준비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위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청년–청장년 세대의 포괄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는 심층면담 자료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했던 목회자의 전문성 결여를 전문적인 부서간 연속성 부족, 목회자의 전문적인 역량 부족, 그리고 전문적인 목회 돌봄의 부족으로 심화되어 가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1) 전문적인 부서간 연속성 부족(Lack of Professional Connectivity between Departments)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이동할 때, 새로운 교회로 옮겨 가는 것 같은 낯섦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는 두 부서의 운영방식과 제공하는 목회적 돌봄의

내용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 부서를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전무해서, 청년들은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낯섦과 단절감 그리고 불안정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 [연구 참여자 A]
>
> *지금 청년들이 청장년으로 이동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상으로 청년부와 청장년부가 너무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저는 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인지가 될 때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보가 안되고, 그래서 청년부를 떠나는 순간 소속감을 단절시키고 빼앗아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부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이동했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결국 결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부서를 구분지음으로써, 이곳과 저곳은 다른 곳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H]는 청년부와 청장년부가 함께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현하였다. 그래서 자신들이 새롭게 이동해야 하는 부서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 H]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연구 참여자 H]
>
> *청년부랑 청장년부의 과도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두 부서 간에 뭔가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하면 청장년에 올라가야 한다는 약간 강압적인 규정도 있고, 그래서 '올라와야 돼.' 이런게 아니라 조금 자연스럽고 연관성 있게 하다가, '이제 올라올 시기가 되었는데 청장년에서 활동해 보는 게 어때?' 이러면 청년부에 있던 그 청년들도 '올라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두 부서 간에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게 있다면, 조금 자연스럽게 올라갈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D]는 청년부와 청장년부가 가져야 하는 연속성에 대해서 "무지개(rainbow)," "그라데이션(gradation)"이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청년들이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는 과정은 무지개와 그라데이션처럼 자연스럽고 섬세한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D]는 이러한 연속성이나 자연스러움 보다는 오히려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것

같은 낯섦과 단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D]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넘어가는 게 뭔가 무지개처럼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지개를 직접 보면 색깔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점점 점점 이 색깔에서 저 색깔로 넘어가는 게, 그라데이션처럼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청년부, 청장년, 이건 너무 선이 딱 그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경계가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뭔가 단절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낯섦과 단절감 그리고 불안정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하였던 것처럼 부서이동 과정에서의 전문성 결여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여기서의 전문성이란,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낯섦과 단절감, 그리고 불안정감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2) 목회자의 전문적인 역량 부족(Lack of Professional Pastoral Capacity)

심층면담에 따른 응답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전문성 부족' 범주의 두번째 주제는 목회자의 전문적인 역량 부족에 관한 내용이다. K 교회는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이다. 많은 사람들이 K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며 부서를 이동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목회자의 역량이 부족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연구 참여자들은 지적하였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 D]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연구 참여자 D]

그냥 터놓고 얘기할께요.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저는 문화계에 있으니까 문화부에 대해서 이야기할께요. 문화부의 결정권이 있는 문화부장님이 문화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문화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을 문화부 장관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문화부에서 쓰죠. 이런 것처럼 청년과 청장년에 대한 전문가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연구 참여자 E]는 청년들이 청장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목회적 돌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자가 질문했을 때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E]는 성경, 신학, 교리, 신앙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성도들의 연령대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연구 참여자 E]는 언급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E]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망감을 느꼈다고 표현했다. 목회자들의 전문적인 준비와 노력이 부족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목회적 돌봄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푸념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 E]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 [연구 참여자 E]
> *저는 이 질문을 봤을 때, 목회적 돌봄이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요, 목회적 돌봄을 교육으로 치환해 봤을 때 만족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거에요? 그 교육을 해주는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다 아는 말만 하고, 청년들이 20년 넘게 신앙 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똑같은 말들을 되뇌어요. 이런 아쉬움을 생각해서 말을 한다면, 사실은 목회자분들이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청장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의 갈등 경험을 함께 치유하는 공동의 주체가 목회자인데, 함께 갈등을 치유하는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한 목회자는 청년-청장년들에게 갈등의 치유 혹은 해소보다는 오히려 실망감을 주는 경우가 많음을 연구자는 분석할 수 있었다.

3) 전문적인 목회 돌봄 부족(Lack of Professional Pastoral Care)

청년들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생겨나면서 교회는 더욱

전문적인 목회적 돌봄을 제공해 줄 필요성이 생겼다. K 교회는 결혼을 기준으로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나누고 있지만, 각 부서에는 결혼 이외에도 다양한 삶의 조건을 가진 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목회적 돌봄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말하였다.

> [연구 참여자 B]
>
> *청장년을 위한 특별한 예배가 따로 있다거나, 청장년을 위한 정기적인 행사가 가족수련회 말고 또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해도 부모교육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부부학교,' '예비부부 학교,' '신혼부부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는 없어서.. 좀 세분화해서 타깃을 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

[연구 참여자 B]는 결혼하여 청장년부가 되었지만, 아직 자녀가 없다. 하지만 K 교회 청장년부에는 '부모-자녀를 위한 프로그램'만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 B]는 청장년부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아직 자녀가 없는 청장년들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부모-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부부의 대화기술, 부부의 성관계, 가정의 재정관리, 청장년을 위한 말씀학교와 같이 다양한 대상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연구 참여자 A]
>
> *청장년부에서 진행한 행사들이 아직은 저에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았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몇 번 왔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안 맞았던 것도 있고, 그런데 저의 욕구와 매칭이 안되는 일을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행사에 다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청장년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에 비율을 좀 이렇게 잘 나누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비혼주의자들, 딩크족이나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A]는 청장년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같은 부서 안에 있더라도 그 속에는 매우 다양한 관심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연구자는 이해할 수 있었다.

5. 규범화(Normalization)

규범화란 다양한 요소를 정해진 기준이나 규칙에 맞게 정리하고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38] K 교회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결혼을 기준으로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구분하고 있지만, 그 결과 청년들의 개별성과 다양성이 무시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규범화'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아래와 같은 응답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규범화로 인한 갈등과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1) 시스템화(Systematization)

> [연구 참여자 E]
>
> *결혼이라는 기준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평균을 중요하게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평균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누는 잣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또 개인보다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개개인의 삶을, 그러니까 한 영혼의 삶을 존중하기보다 제도적으로 꾸려가기 위한 시스템이 더 중요한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경계가 있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주관적인 시스템에 청년들을 몰아 넣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 참여자 E]는 K 교회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성도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조건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수용되는 경험을 해야 하는데, K 교회의 부서 구분 기준으로 인해 배제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 참여자 E]는

---

[38] Chat Gpt(http://chatgpt.com)를 통해 '규범화의 의미'를 질문했을 때, 규범화는 특정 행동, 사고, 언어나 사회적 관행 등을 규범이나 표준에 맞도록 체계화하거나 통일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별히 조직과 시스템 분야에서는, 작업 절차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표준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나 조직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나 관점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답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E]는 K 교회가 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성도 개개인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 A]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청장년부 안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이 계획해 놓은 큰 틀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투입되는 느낌이 강해서, 그렇게 자발성 없이 뭔가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 형태는 저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연구 참여자 A]는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가 반영되지 않은 기준으로 부서가 구분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해, 청년-청장년들이 특정한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하는 K 교회의 운영 방식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2) 개별성 무시(Ignore Individuality)

K 교회는 결혼한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정을 청장년부에 편입시킨다. 그리고 한 가정의 신앙세대주를 남편으로 정한다. 그래서 K 교회에서는 한 가정을 지칭할 때, '홍길동(남편의 이름) 성도님 가정'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성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한 이후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그 결과 K 교회 여성 청장년들은 자신이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며, 교회 활동에서 소극적이고 남성 의존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연구 참여자 B]는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B]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B]

*청년부에서는 제가 막 으쌰으쌰 이렇게 해서 나서서 했는데, 청장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제 이름보다 남편의 이름이 먼저 가니까 좀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적응이 안되었어요. 저는 제가 더 나서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성도님 가정'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럼 내 자리가 여기인가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묘했어요.*

이처럼 결혼을 기준으로 청년-청장년을 규범화 하는 것은,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비혼자, 이혼자, 배우자와 함께 K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혼자, 자녀가 없는 기혼자들은 교회에서 위축되고 소외되는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을 연구자는 분석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심층면담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 과정을 통해 드러난 다섯 가지 범주는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본 프로젝트의 목적에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본 프로젝트와 연관된 선행 연구 자료들을 통해 본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이론을 통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경험을 성찰하였다. 이후 환대 지향적인 공동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Chapter Ⅲ

논지와 관련된 문헌자료의 이론적 검토

(Theoretical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A. 선행 연구 자료(Prior Research Materials)

한국 개신교 교회는 청년 세대의 감소가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년들의 교회 이탈 및 이동 현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함영주와 이현철은 *한국교회 청년들의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 요인 분석*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이동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목회자 요인, 공동체 요인, 개인 신앙 요인, 교회 문화 요인, 헌신 강요 요인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고 있었다.[39]

함영주와 이현철은 청년들의 교회 이탈과 이동을 막기 위해서 신앙 고위험군 청년에 대한 신앙관리, 청년 신앙 성장을 위한 본질적 사역 강화, 청년부 목회자의 통전적 신앙교육과 역량 강화, 환대 중심의 교회 문화 형성, 청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위한 회복과 안식의 필요성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40] 이 선행 연구는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여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선영은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 수도권 교회의 20-30대 모태신앙을 가진 청년들을 중심으로*에서 공동체에 대한 불신과 억압, 주변화, 불필요한 신앙생활이라는 3가지 핵심

[39] 함영주 and 이현철, “한국교회 청년들의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 요인 분석,” *기독교교육논총* vol. 66 (January 2021): 219-22.

[40] 함영주 and 이현철, “한국교회 청년들의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 요인 분석,” 225-32.

범주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41] 그리고 더 나아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해석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의 관점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42] 이 선행 연구는 청년에서 청장년으로 이동하는 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교회가 어떤 이론적 근거를 통해 이해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30대 이상의 비혼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연구도 있었다. 전은성은 *비혼 기독 청년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회 돌봄 실천: 포스트 식민주의와 상호의존적으로 접근하는 질적연구*에서, 한국 개신교 교회가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43] 그리고 한국 개신교 교회가 결혼을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로 인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 개신교 교회 청년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이 선행연구 자료는, 결혼을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하는 K 교회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본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었다.

B.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라는 용어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와 사람들을 위한 정치적인 용어로 처음 등장하였다.[44]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식민지배를 받던 국가의 사람들이 지배 국가로부터 받은 영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한 탈식민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론으로 사용되었다. 탈식민주의를 의미하는

---

[41] 이선영,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 수도권 교회의 20-30대 모태신앙을 가진 청년들을 중심으로” (DMin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23), 21-31.

[42] 이선영,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 관한 질적연구” 8-10.

[43] 전은성, “비혼 기독 청년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회 돌봄 실천: 포스트 식민주의와 상호의존적으로 접근하는 질적 연구” (DMin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22), 24-7.

[44] 김지현, 박효엽, 이상환, and 황희숙, *탈식민주의의 얼굴들* (서울: 역락, 2012), 7.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이라는 단어에서 '탈(post)'이란 접두어는 '~이후에 오는(coming after)'이라는 시간적인 의미와 동시에 '~를 넘어서는(going beyond)'이라는 극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탈(post)'이란,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권과 주권 수립의 해방,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민주의 유산을 지속적으로 청산하고, 동시에 의식의 탈식민지화를 의미한다.[45]

오늘날 식민주의는 단순히 제국과 식민지 국가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식민주의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46] 또한 사람들 사이의 인종, 성별, 출신, 학력, 장애, 종교, 나이 등의 차이로 식민주의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레티 러셀(Letty Russell)은, 식민주의가 '나'와 '너'의 차이를 통해 타자를 구별하고 그 타자를 지배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47] 서로의 차이로 우열을 가리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한다. 이러한 식민주의를 개선하고 해체하는 것이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다.

나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관점에 입각해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는 청년들의 경험을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다섯 가지 억압 이론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매리언 영이 말한 '억압의 다섯 가지 모습'은 착취, 주변화, 무력함, 문화제국주의, 폭력이다.[48]

---

[45]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경기: 살림출판사, 2006), 7-8.

[46] 박흥순,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 (서울: 예영B&P, 2006), 33.

[47] Letty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trans.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63.

[48]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trans. 김도균 and 조국 (서울: 모티브북, 2017), 105.

1) 착취(Exploitation)

착취라는 부정의의 핵심은 불평등 분배를 창출하게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집단으로 에너지가 이전되는 사회과정에 있고, 또 소수는 부를 축적하게 하면서 다수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 사회과정의 방식에 있다.[49] 착취가 있는 곳에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제도들 및 관행 실천들을 다시 조직하고 노동 분업을 바꾸어야 하며, 또한 그와 유사한 제도, 구조, 문화의 변화 조치들이 있어야만 한다.[50]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 E]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연구 참여자 E]
> *교회가 개인보다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의 삶을, 그러니까 한 영혼의 삶을 존중하기보단 제도적으로 꾸려가기 위한 시스템이 더 중요한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따르면 가장 초기의 정치조직 형태는 가부장과 가족 구성원들로 형성되는 가족의 연장이다.[51] 인간이 자기 삶의 방식에 비추어 신을 생각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유교에서의 가족의 의미를 종교적 차원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 도움을 준다.[52] 유교에서 '가족'은 단순한 개인적, 사회적 단위를 넘어선 종교적 상징성을 지니며, 이는 조상 숭배와 효(孝) 사상과 같은 전통적 가치 체계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유교적 영향 속에 있는 한국 개신교 교회는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K 교회는 가족을 중심으로 부서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가족은 '혈연,' '이성,' '초혼,' '자녀'와 같은 부가적인 조건이 달린

---

[49]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31.
[50]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31.
[51] Aristotle,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1252b, 1259b.
[52]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경기: 동녘, 2018), 98.

가족이다. 가족 중심의 신앙관은 현재 교회의 기득권 층인 기성 세대들에게 내재화되어 있고, 기성 세대들은 자신들의 신앙관을 근거로 교회의 구조와 제도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구조와 제도 속에서 '이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둔 부부'는 다수의 구성원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 E]는 교회가 개개인의 삶을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하기보다는 결혼과 가족이라는 기준으로 성도들을 규범화하고, 그 기준과 맞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을 외면하는 착취를 경험하고 있었다.

2) 주변화(Marginalization)

주변화는 타자를 주변인으로 만드는 소외의 현상을 말한다. 주변화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서 배제되어 주변부로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매리언 영은 주변화야말로 가장 위험한 억압 형태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53]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화를 경험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연구 참여자 D]
> *이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계속 청년부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교회를 다녀야 하는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기준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 [연구 참여자 B]
> *청장년 수련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안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순간 갑자기 확 제3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 장면을 관람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연구 참여자 D]는 30대 후반에 결혼했지만, 비교적 빨리 이혼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기혼자이기 때문에 청장년부로 이동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혼자이기 때문에 청장년부로 이동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연구 참여자 D]는 K 교회 모태신앙인으로써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53]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32.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결혼으로 부서를 구분하는 K 교회의 규정으로 인해 점차 주변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B]는 K 교회 모태신앙인으로써 20대 후반에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청장년부에 정착하였다. 하지만 청장년부에서 진행하는 속회와 프로그램들이 자녀가 없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연구 참여자 B]는 청장년부 안에서 제3자가 되는 주변화를 경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연구 참여자 B]의 진술을 통해, 교회가 특정한 기준으로 부서를 나눌 때 주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3) 무력함(Powerlessness)

무력함이라는 억압의 핵심적 쟁점은 계획을 짜는 자와 그 계획을 수행하는 자를 사회적으로 나눈다는 것이다.[54] 무력한 자들은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하지만 명령을 내릴 권리는 거의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말한다.[55] 무력함은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지 못하게 막는 것,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권력을 갖지 못하는 것, 개인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지위 때문에 존중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56]

> [연구 참여자 A]
>
> *뭔가 어른들이 계획해 놓은 큰 틀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입되는 느낌이 강해서, 그렇게 자발성 없이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이라 그런 형태는 저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
> [연구 참여자 E]
>
> *청년으로서 담임목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목회 돌봄만 받게 되고, 충족이 되지 않죠.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가 원하는*

---

[54]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41.
[55]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37.
[56]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40.

목회적 돌봄이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A]와 [연구 참여자 E]는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의사 전달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였다. 교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구조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소속감의 결여를 경험하고 있었다. 김광남은, 지금껏 한국 개신교 교회가 실패해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회의 몰상식과 불투명성이었고, 교회의 민주적 운영은 한국 개신교 교회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하였다.[57]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가 모든 결정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G]

어떤 한가지 상황이 있을 때, 천명이 있으면 천가지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은 어쨌든 그것들을 다 조화롭게 조합해서 결정을 내릴텐데, 그럴 경우 자신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면 그냥 상처받지 않고, '그럴 수 있구나,' '목회적인 방향이 다르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상적으로 흘러가면 좋은데, 현실과 이상은 다르니..

[연구 참여자 G]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진술로 볼 때 청년-청장년들이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력함을 느끼는 원인은 '결정 결과'가 아니라 '결정 과정'이라는 것을 연구자는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의견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 전달 구조가 K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목회자와의 편안하고 수평적인 관계, 명확한 의사 전달 구조가 청년-청장년들이 경험하는 무력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57] 김광남, *교회 민주주의* (파주: 비전북, 2022), 17.

발견하게 되었다.

4)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문화제국주의의 핵심은, 지배 집단의 경험과 문화를 보편화하고 유일한 규범으로 확립하는 것이다.[58] 문화적으로 지배 받는 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가시적인 표지가 붙여지면서, 그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억압을 받는다.[59] 지배문화가 결정한 표준에서 벗어나면 '타자'라고 규정되어 소외되고 주변화 된다. 문화제국주의는 지배 집단들이 자신들의 관점이 여러 관점 중 하나일 뿐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된다.

> [연구 참여자 E]
>
> *얼마 전에 제가 청년부 예배에서 게이커플을 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오는지 알아요. '여기가 얼마나 안전한가, 설교가 얼마나 안전한가, 찬양이 얼마나 안전한가, 기도가 얼마나 안전한가' 이거를 계속 점검하러 오는거 거든요. 이혼한 사람도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혼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나, 아니면 뭐라고 말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비혼주의인 사람들도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여기서 안전한가'를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혼의 형태보다 개개인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으로 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참여자 E]는 청년부 예배안내 사역을 담당하며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에 방문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E]는 등록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찾아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교회에서 '타자'로 규정되지 않고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나 또한 새가족 등록을 안내하면서 동성애자, 레즈비언과 같은 성소수자들과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다.[60] 하지만 이들은 K 교회 청년부에 정착하지 못하였다. 성소수자들에게는 K 교회

---

[58]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42.

[59]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43.

[60] K 교회 청년부는, 예배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예배만 드리고 갈 것인지, 등록하고 4주 과정의

청년부가 자신들의 ‘다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목회자로서 성소수자들이 K 교회 청년부에서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나의 무의식적인 말과 태도,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자신들이 포함될 수 없는 어떤 ‘표준’이 느껴졌을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강남순은, 교회는 성별, 사회적 계층, 인종을 초월한 평등성과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성을 나누는 ‘평등의 제자직’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소위 의로운 사람이나 죄인,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교육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남자나 여자, 예수의 제자나 바리새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성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포괄적 공동체(inclusive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61] 그들은 각기 다양한 양태로 소외당한 주변부적 존재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다층적 소외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62]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가정의 표본이라는 지배문화 속에서 주변화, 그리고 타자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5) 폭력(Systematic Violence)

폭력은 물리적, 심리적, 구조적 형태를 포함하는 억압의 한 유형으로, 특정집단이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격이나 위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

새가족교육을 받을 것인지 의사를 확인한다. 새가족교육을 받기로 결정하면 첫번째 교육은 담당목사가 직접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성적 정체성과 지향성을 가진 이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1]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14.

[62]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14.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관습과 깊은 연관이 있다.[63] 메리언 영은 폭력이라는 억압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억압의 일부로 이해한다.[64] 이는 단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문화적, 제도적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체계적 폭력은 단순히 행위를 멈추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 참여자 F]
> *나중에 자녀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다른 친구의 엄마 아빠는 청장년교구고, 우리 엄마는 일반교구라고 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가정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아이가 느낄 상실감과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아빠를 전도하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F]는 비기독교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 서로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결혼을 약속했고, 아직 종교로 인한 갈등은 경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결혼할 사람이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K 교회 청장년부에 소속되기 위해 형식적으로라도 결혼할 사람을 K 교회에 등록시키라는 권면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F]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부족함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갈등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비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 결혼 전에 배우자를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나중에 자녀가 자신이 청장년교구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부모를 전도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청장년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문화와 관습으로 인한 심각한 정서적 폭력에

[63]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48.
[64]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148.

해당하는 억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C. 환대(Hospitality)

조슈아 W. 지프(Joshua W. Jipp)의 *환대와 구원*의 서문에는, 교회는 공동체 안의 차이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계속 씨름해 왔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기독교인들 사이의 민족, 성별, 인종, 문화, 사회경제적 차이들을 다룸에 있어서 환대의 역할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65] 환대(hospitality)는 낯선 이방인을 친구로,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안전과 쉼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지프는 신약성경에서 환대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강조하며, 환대는 단순한 친절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였다. 환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적 은혜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이웃을 포함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환대는 단순히 주인이 자신의 공간을 열어 손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윤리적 수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지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환대를 실천할 때 독자 중 일부가 경험했거나 지금까지의 내 주장에 대해 반대했을 수도 있는 한 가지 위험은 우리는 주인이고 다른 사람은 그저 손님일 뿐이라는 잘못된 믿음이다. 달리 말하자면 권력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가 베푸는 환대의 수혜자들로 생각할 유혹을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릇된 우월감을 갖게 될 수 있다. 에이미 오든은 이 위험에 대해 명확히 묘사한다. "동정심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욕망은 좋은 것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의 마음에 주어진다. 그러나 주인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매혹적이고 심지어 위험하기도 하다. 선의의 환대 행위가 생색내기로 바뀌고 자신의 필요도 보지 못하며 외인의 진정한 정체성이 그리스도라는 점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손님이라고 지적한다. 즉 그들은 때로는 서로의 손님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손님이다.[66]

---

[65] Joshua W. Jipp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환대와 구원,* trans. 송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12.

[66] Jipp,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환대와 구원,* 175-76.

지프는 타인에 대한 환대는 결코 선택적일 수 없으며, 인간의 정체성 자체가 환대의 중심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삶의 정황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의 정황과 조건은 있는 그대로 존중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지프는 환대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아모스 용은 "기독교 선교란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용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원수들과 외인들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 자기 아들을 외인으로 보낼 정도로 하나님의 환대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외인들을 사랑하는 신적 환대"를 구현한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사명은 잃어버린 바 되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그들에게 신적 환대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임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죄인들,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환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바울이라는 인물도 종교적 타자들에게 하나님의 환대를 구현하고 시행하는 수단으로서 의도적으로 종교적 타자들의 손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고 제안한다.[67]

환대란 단순히 적대의 반대말이 아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신조어인 '호스티피탈리티(hostipitality)'는 '적대(hostility)'와 '환대(hospitality)'를 합친 용어로써 굳이 번역하자면 '적환대'라고 할 수 있다.[68] 데리다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환대와 적대가 사실은 매우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적환대의 개념은,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환대와 적대의 상황을 해석하는데 사용하였다.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은 교회가 베푸는 '환대의 현장'에 있지만, 동시에 '적대의 현장' 속에도 있다. 청년들은 결혼이라는 기준으로 누군가는 받아들여지고, 누군가는

---

[67] Jipp,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환대와 구원,* 179-80.
[68] 강남순, *데리다와의 데이트* (파주: 행성B, 2022), 228.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한 청년들이 청장년부에서 축하 받으며 환영 받는 환대의 현장 이면에는, 결혼하지 않은 이들의 존재가 가려지는 적대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다.

환대란 '나'를 타자에게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란 한 개별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이든, '주인'의 역할을 하는 주체를 의미한다.[69] 진정한 환대는 무조건적인 환대이며, 환대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이에 대해 강남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데리다가 말하는 무조건적 환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손님'이 초대받은 이들이든 방문하는 이들이든,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든 모두를 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이 나와 다른 젠더, 인종, 성적 지향, 계층, 학연, 지연 등을 가졌더라도, 그 어떤 존재라도 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대받은 손님만이 아니라, 초대장 없이 방문하는 모든 존재를 환영하는 "무조건적 환대의 절대적 법"이기 때문이다.[70]

나는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청년기 이후에 다니게 될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시겠습니까?,'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들을 하였다. 이 질문들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대답을 통해 청년-청장년들이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그 속에는 '환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내용은 환대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진술들이다.

> [연구 참여자 C]
> *내가 왜 이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지, 사랑받기 위해 있는지, 보고 배우기 위해 있는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있는지, 그런 존재의 의미를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
> [연구 참여자 C]
>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공동체의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죠.*

---

[69] 강남순, *데리다와의 데이트*, 257.
[70] 강남순, *데리다와의 데이트*, 258.

[연구 참여자 D]

저는 교회가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한 사람이라도 다시 돌아와서 환영 받을 수 있고, 그 아픔에 대해서 수근거리지 않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E]

그러니까 그런 다수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도 환대해주고, 의견 수용이 되는 그런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소위 말하는 인권 감수성도 뛰어나야 할 거고, 차별이나 혐오에 대한 센스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F]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어요. 가족 구성원이 어떻든 간에 동일한 청년부, 청장년부로 묶이고, 뭔가 저의 상황이나 어떤 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아도 되는 교회.. 예를 들면 직업이라든지, 결혼 유무나 자녀 유무도, 그리고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분리가 되지 않고 그냥 공평한 교회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G]

외국에서 잠시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가족처럼 챙겨주었던 교회가 많이 인상이 좋게 남아 있어요.

환대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연구 참여자는 한 명이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존중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지향하는 교회를 기대하고 있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먼 타자든 가까운 이웃이든 모든 이에게 평화(이사야 57:19)"[71]를 기원하는 것처럼, 환대의 범주가 "이웃, 이웃의 이웃, 그리고 동료가 아닌 사람들인 타자의 이웃"인 "제3자"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환대의 윤리, 무조건적인 환대를 강조한다.[72]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청장년부로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 다양한 목회적 돌봄, 의사소통 구조의

[71]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이사야 57:19, 개역개정)

[72] 강남순, *데리다와의 데이트*, 258.

개선, 세부적인 부서 구분 기준과 같은 여러 가지 기대를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환대 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교회가 환대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Chapter Ⅳ
실천적 제안
(Practical Suggestions)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내용을 2장에 기술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라는 이론적 관점으로 심층면담 분석 내용을 성찰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 개신교 교회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목회적 돌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 자료를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은 새로운 부서 구분 기준을 만들고, 더 좋은 신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의 삶과 그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는 세리, 창녀, 죄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사회적 계층과 배제를 해체하는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의 마지막 만찬 역시 실수하고 실패할 제자들을 포함한 자리였다. 이처럼 예수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성찬은 거룩한 자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환대와 용서를 경험하는 자리였다. 교회는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배우고 성찬을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1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수업에 참여하며 나는 특별한 성찬식을 경험했다. 수업 참여자들이 각자 원하는 빵과 음료를 준비하고, 그 빵과 음료를 선택한 이유를 서로에게 설명하였다. 모두의 설명을 듣고 각자가 준비한 빵과 음료를 나눠 먹는 단순한 형식의 성찬식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성찬 속에는 각자의 다양한 생각과 지나온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수업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삶이 받아들여지는 환대를 경험하였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호성의 갈등, 돌봄의 사각지대, 소통의 단절, 전문성 부족, 규범화와 같은 현상들을 성찬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에 나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의 의미를 구현한 성찬식을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성찬식을 실행한 후 피드백을 받았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직접 애찬식을 기획하여 자신이 속한 소그룹에서 실행하고, 애찬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다.

A.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관점으로 보는 성찬(The Eucharist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혼종성(hybridity)과 제3의 공간(The Third Space)이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에서 말하는 포용의 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교제와 성찬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학자는 에드워드 폴리(Edward Foley)다. 그는 예수의 식사가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망라한 매우 독특한 것이었음을 설명하면서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예수의 식탁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주제였음을 밝혔다.[73] 에드워드 폴리는 예수의 식탁교제의 자리가

[73] Edward Foley, "Eucharist, Postcolonial Theory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Practical Theologian Revisits the Jesus T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Practical Theology* vol. 15, Issue 1 (August 2011): 61-2.

바로 제3의 공간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역할의 섞임, 즉 혼종성의 공간이 바로 예수의 식탁교제의 자리였다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74]

> 식사라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선상에서, 여러 가지의 반전(reversal)이 이루어진다. 초대받은 손님이었던 예수는 주인이 되고, 초대받지 못한 죄 많은 여인은 더욱 아름답고 정중한 친절(hospitality)을 베풀게 되니 어쩌면 주인으로 여겨질 수 있겠다. 언급되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사상이 예수의 공적인 대화의 주제가 되고, 가장 심각한 죄인이 가장 사랑받는 이가 된다.[75]

이처럼 성찬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계층들이 차별없이 만나고,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환대의 자리가 된다. 이 환대의 자리에서는 다름으로 인한 모든 경계선들이 무색해진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공동체의 식사의 일부였다. 고린도전서 11장 20-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76]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유한 신자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잘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일찍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을 일해야만 하는 가난한 신자들은 일찍 도착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가난한 신자들은 공동체 식사에 별로 내놓을 음식이 없었다. 부유한 신자들은 사람들이 다 도착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저녁 일찍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가난한 신자들이 도착할 무렵이면 음식과 마실 것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만취 상태가 되기도 하였다.[77]

이에 대해 바울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지체이며,[78] 각 사람에게

---

[74] 안덕원,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기독교 성찬: 혼종성(Hybridity)과 제 3의 공간(The Third Space)으로 구현하는 프롤렙시스(Prolepsis),” *복음과 실천신학* vol 38 (January 2016): 155.

[75] Foley, “Eucharist, Postcolonial Theory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64.

[76]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고린도전서 11:20-22, 개역개정)

[77] Laurence Hull Stookey, *Eucharist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trans. 김순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51-2.

[78] 고린도전서 12:12-27, 개역개정.

존재하는 다양성은 성령의 선물이며,[79] 성찬은 모든 이들이 차별과 소외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연합의 자리임을 말하였다.[80] 이처럼 성찬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 상호 연대성을 증명하는 자리이다.[81]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수많은 차이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공존하는 공동체의 축제로서의 성찬을 꿈꾸었다.[82]

이렇게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관점으로 성찬을 이해하면, 이 거룩한 식사와 나눔의 자리가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계층별로 음식이 다르고, 앉는 자리가 달랐는데, 성찬의 자리에서 모든 이항대립이 사라졌다. 당시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식탁에서의 차별의 철폐는 새롭고도 파격적인 현상이었다. 성찬의 공간은 '저항의 터전'이자 '대안적 장소'이고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적 공간이다.[83] 바울은 성찬식에서 평등적(egalitarian)인 관계와 연대(solidarity)를 추구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관계의 패턴을 파기했다고 보았다.[84]

B. 환대의 관점으로 보는 성찬(The Eucharist from a Perspective of Hospitality)

래티 러셀(Letty M. Russel)은 우리의 예배가 공정한 환대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세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 지향적인 예배의 변화를 통해 서로 함께 환대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85] 예배는 하나님의

---

[79] 고린도전서 12:4-11, 개역개정.
[80] 고린도전서 10:16-17, 개역개정.
[81] Stookey, *Eucharist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52.
[82] 안덕원,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기독교 성찬," 162.
[83] 안덕원,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기독교 성찬," 159.
[84] Richard A. Horsley, *1 Corinthians, Abingdon New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8), 165.
[85] Russe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169-71.

사랑을 이미지, 언어, 직접적 행위로 표출함을 통해 타자를 공동체 안에 수용하고 타자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환대를 서로 함께 경험하는 반복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86]

성찬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화해와 하나 되는 경험을 줄 수 있는 예배의 의례 가운데 하나이다. 성찬은 하나님의 자기주심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사건이며,[87] 이러한 경험을 통해 타자에게 자신의 권리와 자리를 내어주는 '자기 내어줌'이 성찬의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다.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출신, 계층, 성별과 관계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게 된다.[88] 따라서 성찬은 배타와 배제에서 환대를 경험하게 하는 화해의 공간이 된다.

복음서에는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89]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예수의 식탁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식탁은 우리의 정체성이 탄생한 자리이자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재생되고 기억되고 경험되는 장소"라고 말한다.[90] 예수가 공생애 기간 동안에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이방인, 병자, 죄인, 여성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것은, 그 자리를 환대가 가득한 '제3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

[86] 이향순, "공감에 기초한 타자 지향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 논총* no. 60 (December 2019): 424.

[87] James White,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trans. 김운용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11), 113.

[88] 갈라디아서 3:28 (개역개정)

[89] 개역개정 마태복음 9:9-13; 마가복음 2:13-17; 누가복음 25:29-32; 누가복음 15:1-2를 참고하라.

[90] Leonard Sweet, *From Tablet to Table 태블릿을 넘어 테이블로*, trans. 장택수 (고양: 예수전도단, 2015), 18.

C. 환대를 경험하는 소그룹 성찬(Experiencing Hospitality in a Small Group Eucharist)

1. 기획의도(Concept and Purpose)

나는 본 프로젝트를 위해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K 교회 청년-청장년들이 매우 다양하고 다층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K 교회가 결혼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하면서, 이들은 교회에서 다양한 갈등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K 교회의 청년-청장년들도 비슷한 조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더욱 깊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서로의 다름이 편견없이 수용될 수 있는 제3의 공간으로 '소그룹 성찬'을 준비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을 초대하였다. 서로의 다름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가치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그룹 성찬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환대의 경험은, 교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경계선들을 지우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되게 하는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2.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Selection of Program Participants)

'프로그램 참여자'는 심층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와 동일한 수로 선정하였고,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와 같이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년-청장년들로 선정하였다. 나는 소그룹 성찬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최대한 간략히 소개하였고, 소그룹 성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소그룹 성찬의 목적에 대해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소그룹 성찬을 진행하며 촬영한 사진과 나눔의 내용들이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적 사항을 연구 자료에 기재할 것임을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은 〈표7〉과

같다.

<표 7>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나이	성별	결혼	자녀	소속	직업
프로그램 참여자 A	44	남	유	유	청장년부	회사
프로그램 참여자 B	41	여	유	유	일반교구	전업주부
프로그램 참여자 C	39	남	이혼경험	무	청년부	예술인
프로그램 참여자 D	33	남	유	무	청장년부	회사
프로그램 참여자 E	31	여	무	무	청년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자 F	30	여	유	출산예정	일반교구	휴직
프로그램 참여자 G	29	여	무	무	청년부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자 H	29	남	결혼예정	무	청년부	회사
프로그램 참여자 I	27	남	무	무	청년부	학생
프로그램 참여자 J	11	남	무	A 의 자녀	아동부	학생

3. 준비과정(Preparation Process)

실천적 대안으로서의 '소그룹 성찬'에는 본 프로젝트의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들은 초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본 프로젝트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선이해가 있고, 이는 소그룹 성찬에 대한 의미를 경험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층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과 실천적 대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을 구분하고, 실천적 대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을 '프로그램 참여자'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소그룹 성찬의 경험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그룹 성찬의 기획 의도와 목적을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다양한 감각을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환영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오감을 활용하여 소그룹 성찬을 준비하였다. 소그룹 성찬은 K 교회의 세미나실에서 진행하였다. K 교회의 세미나실은 20명 이내의 사람들이 소그룹 활동을 하기에 적절한 크기이며, 조명은 따뜻하고 밝은 톤으로 설치되어 있어 소그룹 성찬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K 교회의 세미나실은 다른 공간에 비해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어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좋은 공간이다.

소그룹 성찬은 화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였다. 이 시간은 학생, 직장인, 전업주부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모일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응답한 시간이었다. 사전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전화하여 소그룹 성찬의 모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추후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였다.

1) 시각(視覺, Sense of Visual)

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소그룹 성찬을 통해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물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색의 매트를 테이블에 세팅하고, 다양한 종류의 무릎덮개를 의자에 걸어 두었다. 또한 성찬에 사용할 다양한 모양의 빵과 다양한 색의 음료를 준비하고, 서로에게 전해줄 꽃도 모두 다른 종류로 준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전체 세팅 풍경〉



〈다양한 빵과 음료〉



〈다양한 색깔의 테이블 매트〉



〈다양한 종류의 꽃〉

2) 후각(嗅覺, Sense of Smell)

후각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오감 중에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감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후각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인 변연계(특히 편도체와 해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91] 그래서 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소그룹 성찬에서의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91] Chat Gpt(http://chatgpt.com)를 통해 '사람의 오감 중에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감각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였을 때, 후각이라고 답변해주었다. 특정 냄새는 과거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감정적으로 강렬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이를 '프루스트(Proust Effect) 효과'라고 하며, 냄새가 어릴 때의 기억이나 특정 순간을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을 설명해주었다.

그들에게 익숙한 스타벅스 커피향을 프로그램 실행 공간에 준비하였다. 스타벅스에서 구입한 분쇄된 커피를 커피메이커를 통해 계속 추출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 내내 커피향이 나게 하였다. 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이후에 어디서든 커피 향을 맡을 때, 성찬의 기억을 떠올릴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기획을 하였다. 또한 다양한 빵과 꽃을 통해 맡게 되는 냄새도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후각적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커피향을 내기 위한 메이커〉



〈커피향을 내기 위한 스타벅스 원두〉

3) 미각(味覺, Sense of Taste)

소그룹 성찬은 화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였고, 그 시간은 직장에서 퇴근하여 오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무엇인가를 준비해오기 어려운 시간이다. 그래서 소그룹 성찬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빵을 연구자가 직접 파리바게트에서 구입하였고, 소그룹 성찬에 필요한 음료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연구자가 직접 구입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소그룹 성찬을 시작하기 전에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준비하였다.



〈다양한 맛의 음료〉



〈다양한 종류의 과일〉

4) 청각(聽覺, Sense of Hearing)

연구자는 다양한 성경본문을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나누어 읽는 ‘서로를 듣는 말씀’의 순서를 기획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다양한 본문을 다양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서로를 듣는 찬양’은 악기 반주 없이 부르도록 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서로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성찬 전에 부르는 ‘서로를 듣는 찬양’은 단음 합창으로 시작하여 화음 합창으로 부르며 다양성을 경험하도록 하였고, 성찬 후에 부르는 ‘서로를 듣는 찬양’은 화음 합창으로 시작하여 단음 합창으로 부르며 다양성이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소그룹 성찬이 시작되기 전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마음이 이완될 수 있게 하였고, 성찬을 위해 빵과 음료를 먹는 시간에도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 조용한 음악을 틀었다.



〈음악을 위한 블루투스 스피커〉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찬양하는 모습〉

5) 촉각(觸覺, Sense of Touch)

소그룹 성찬이 진행된 날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겨울이었다. 연구자는 극세사(極細絲, microfiber) 담요를 제공하여 프로그챔 참여자들의 차가워진 몸이 따뜻하게 되고, 극세사 담요의 부드러운 촉감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빵을 직접 자르며 빵의 촉감을 경험하였다.



〈부드러운 질감의 담요〉



〈직접 빵을 자르며 촉감을 느끼는 모습〉

4. 진행가이드(Progress Guide)

소그룹 성찬은 연구자가 진행하였고, 소요시간은 1시간으로 기획하였다. 목회자인 연구자가 진행하는 소그룹 성찬이 경직되게 느껴지지 않도록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말투와 행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소그룹 성찬의 진행 순서는 〈표 8〉과 같다.

<표 8> 소그룹 성찬 진행 순서

순서	제목	진행 내용
1	준비와 환영	- 잔잔한 음악을 감상하며 서로 인사를 나눈다. - 전시되어 있는 빵과 음료, 꽃을 감상한다. - 순서지에 있는 성경구절과 꽃말을 읽는다.
2	여는 말	- 사회자가 대표로 간단한 인사말을 전한다. - 모임의 목적과 진행순서를 간단히 소개한다.
3	서로를 듣는 찬양	- '사랑의 나눔' 찬양을 다함께 무반주로 세번 부른다. - 첫 번째는 단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 화음을 넣어 부른다.
4	서로를 듣는 말씀	- 환대, 다양성, 연합, 사랑에 관련된 성경구절을 읽는다. - 한 사람이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는다. - 서로의 목소리와 성경구절의 내용에 집중하도록 안내한다. - 성경구절을 다 읽은 후 생각나는 단어를 하나씩 말하도록 한다.
5	성찬의 이야기 (성찬 제정사)	- 사회자가 진행한다. - 성찬 제정사가 길지 않게, 자연스러운 현대 말투로 진행한다.
6	서로를 나누는 성찬	- 전시되어 있는 빵과 음료를 한 사람씩 선택하여 자리로 돌아간다. - 자신이 선택한 빵과 음료에 비유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현재 자신의 삶에서 나누고 싶은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한다. - 모든 나눔이 끝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빵을 직접 잘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 이때 한 사람씩 진행하여 다른 참여자들이 지켜볼 수 있게 한다. - 이어서 전시되어 있는 꽃 한송이를 전해주며 그 꽃의 꽃말의 의미를 담아 응원, 축복, 위로의 말을 간단히 전한다. - 모든 참여자의 순서가 끝날 때까지 서로의 나눔에 경청한다.
7	서로를 듣는 찬양	- '사랑의 나눔' 찬양을 다함께 무반주로 세번 부른다. - 첫 번째 두 번째는 화음으로, 세 번째는 단음으로 부른다.

8	환대의 식탁	- 서로를 위해 나눈 빵과 음료를 먹으며, 그 속에 담긴 상대방의 삶의 의미를 생각한다. -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음식을 먹어도 좋고, 자신의 빵을 다른 이들에게 더 나누어도 좋다고 설명한다. - 조용하지만 밝은 분위기의 음악을 틀어준다.
9	닫는 말(기도)	- 사회자가 정리하는 인사말을 한다. - 참여자가 모두 함께 닫는 기도문을 낭독한다.
10	파송과 인사	- 자연스럽게 서로가 느낀 점을 나누며 집으로 돌아간다. - 간단한 악수나 포옹과 같은 스킨십을 해도 좋다고 안내한다.

소그룹 성찬의 소요시간은 약 1시간 10분이었고,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다같이 자리를 정리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공간 이곳저곳을 자세히 관찰하기도 하였다. 소그룹 성찬은 연구자가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소그룹 성찬에 참여하게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한 명씩 세미나실로 들어올 때마다 먼저 도착한 이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고, 그때마다 분위기가 다양하게 전환되는 것을 연구자는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순서지를 제작하였고, 진행 순서와 '서로를 듣는 말씀'에 사용될 성경구절, '서로를 듣는 찬양'의 가사, 그리고 서로에게 전해줄 꽃의 '꽃말'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였다.



〈순서지〉



〈성경구절과 꽃말 설명〉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서로 특별한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어 하는 분위기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빵과 음료, 꽃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색한듯 대답을 망설이는 프로그램 참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자연스러워졌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서로 편안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자 B]

처음 대화를 나눠 본 형제, 자매라 어색함이 있었지만, 진지한 나눔을 듣고 나니 응원하게 되고, 더 깊은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그램 참여자 D]

꽃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나눔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고, 아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고 위로와 응원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E]

빵을 고르고 그 빵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삶을 나누는 경험이 좋았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빵의 종류로 자신을 설명하고 나눔을 한다는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위와 같은 진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차 편안해졌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정황 속에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 E]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조금 더 긴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 H]는 삶이나 신앙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점점 소그룹 성찬에 집중하는 모습을 연구자는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새롭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소그룹 성찬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 [프로그램 참여자 E]
>
> *청소년, 청년, 청장년, 속회,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공동체와 '소그룹 성찬'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삶의 형태와 연령대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주치긴 하지만 나눔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나눔을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입체적으로 알게 되고 친밀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의 나눔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 나눔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
> [프로그램 참여자 G]
>
> *얼굴은 알지만 대화를 많이 나누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소그룹 성찬'을 진행해보고 싶어요. 불편함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
> [프로그램 참여자 I]
>
> *오늘과 같이, 예상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너무나 다른 상황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그룹 성찬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많았지만,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즉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서 부담으로 느껴졌다,' '찬양을 함께 골라서 부르면 좋겠다,' '나만 찬양을 모르는 것 같았다'와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후각의 경험을 위해 준비한 스타벅스 커피는 생각보다 향이 진하게 나지 않아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을 남겨 주었다

[프로그램 참여자 F]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일 오전에 소그룹 성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연구자에게 연락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그램 참여자 F]를 제외하고 진행하기 위해 자리 세팅과 준비물을 9명에 맞추어 조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참여자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참여자 F]가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다른 참여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서로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소그룹 성찬의 의미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참석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참여자 F]를 위해서 다른 참여자들과 동일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빵과 음료를 선택하여 나눔을 하는 시간과 꽃을 전하며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시간에는, 진행자가 [프로그램 참여자 F]를 대신하였다.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것도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가진 다양성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또한 환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래에는 소그룹 성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자료로 첨부하였다.



〈순서지를 가져가는 모습〉



〈시작을 기다리는 엄마와 아들〉



〈빵을 직접 고르며 즐거워하는 모습〉



〈음료를 고르며 흥미 있어 하는 모습〉



〈참가자들이 꽃을 고르는 모습〉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



〈자신의 빵을 나누는 모습〉



〈꽃을 전하며 격려와 응원을 나누는 모습〉



〈자신의 빵을 나눌 대상을 찾는 모습〉



〈자신의 이야기를 빵에 담아 나누는 모습〉

D.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피드백(Feedback from the Program Participants)

<표 9> 소그룹 성찬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피드백

	내용
프로그램 참여자 A	교회에서 인사는 해봤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돌발행동에 어색하고 불편했던 분위기가 편해졌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통일되게 세팅을 한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른 것들이 보여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깊은 나눔을 해야 하나 걱정했지만, 빵, 음료수, 꽃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해서 오히려 편안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나눔의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성찬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오래된 친구들이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B	빵과 음료로 자신을 표현하는 순서가 가장 기억이 나요. 처음 대화를 나눠 본 형제 자매라 어색함이 있었지만, 진지한 나눔을 듣고 나니, 응원하게 되고, 더 깊은 나눔이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그룹 성찬을 지금의 속회 사람들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빵과 음료를 나눌 때 나눔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과 편안한 음악이 있어서 나눔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어요.
프로그램 참여자 C	저는 꽃을 나눈 시간이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한 언어가 아닌, 꽃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조금 더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관계가 깊은 사람들과 하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와 공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조금 더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프로그램은 부담감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D	꽃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나눔을 통해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알고, 아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고 위로와 응원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늘 저 개인에게 향했었다면, 오늘 경험한 성찬은 함께 한 이들에게 향했습니다. 성찬이 함께 하는 것임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사역팀들과 함께 소그룹 성찬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역팀은 늘 사역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져서 아쉬운데, 소그룹 성찬을 함께 해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어서 나눔을 할 때, 생각할 조금의 여유의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응원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E	빵을 고르고 그 빵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삶을 나누는 경험이 참 좋았어요. 성찬식을 하고 빵의 종류로 자신을 설명하고 나눔을 한다는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교회 안에서 마주치긴 하지만 나눔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짧지만 나눔을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입체적으로 알게 되고, 친밀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의 나눔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 나눔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서 조금 놀랐어요. 청소년, 청년, 청장년, 속회,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공동체와 '소그룹 성찬'을 진행해보고 싶어요. 다양한 삶의 형태와 연령대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형태와 연령대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조금 더 긴 나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분위기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F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함.
프로그램 참여자 G	비슷한 느낌을 주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 명의 목소리로 돌아가면서 읽는 것이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보지 않은 사람들과도 편안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찬식을, 얼굴은 알지만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어보지 않은 사람들과도 해보고 싶습니다. 불편함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과 같은 형식이 다 좋았지만, 서로를 듣는 찬양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 길게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H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짧게나마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똑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저는 저의 CM 원들과 이런 성찬을 해보고 싶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짧게지만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나면 좀 더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I	저는 성찬의 이야기 시간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고, 어렵지만 진실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 나눔의 시간 자체가 차분해지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런 소그룹 성찬을 다시 진행한다면, 오늘과 같이 예상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상황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듣는 찬양은,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조사하여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고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만 그 찬양을 몰랐던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색다른 우리를 이어주신 하나님, 소중한 동역자가 옆에 있음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J	저는 아빠, 엄마랑 또 하고 싶습니다. 제일 친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다.

나는 소그룹 성찬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경험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모호성, 돌봄의 사각지대, 소통의 단절, 전문성 부족, 규범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K 교회는 성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화는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표준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을 K 교회 청년들이 갖게 하였다. 이로 인해 K 교회에는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년들이 발생하였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은 소외감을 경험하며, 청년들의 다양한 개별성은 무시 당하고 있었다.

소그룹 성찬을 경험한 대부분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낯선 사람들, 자신과 다른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소그룹 성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과 다른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교제하며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더 다양한 연령대, 더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다. 소그룹 성찬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탈규범화(denormalization)'의 긍정적 가능성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소그룹 성찬의 경험이 서로의 다름을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다채로운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다.

소그룹 성찬을 통한 탈규범화의 경험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갖게 해주었다. 이러한 기대감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들을 돌봄의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교회가 정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시스템 밖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위해 교회가 어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단서가 될 것이다.

소그룹 성찬이 진행되는 장소로 입장하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먼저 온 참여자들이 놀랄 정도로 소그룹 성찬의 구성원은 다양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대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끝내 답을 찾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소그룹 성찬에는 초대받기 위한 기준과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K 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혼이라는 기준으로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나누고 있고, 이러한 기준은 표면적으로는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청년들의 결혼관이 다변화하고, 결혼의 시기가 점차 늦어지면서 결혼 유무를 부서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인한 모호성이 K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아무런 참여 기준이 없는 소그룹 성찬을 통해서, 모호성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소그룹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과 자신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과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집중하였고, 그 시간이 불편함이 아닌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응답을 통해 연구자는 소그룹 성찬을 통해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충분히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소그룹 성찬은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호성, 돌봄의 사각지대, 소통의 단절, 전문성 부족, 규범화와 같은 현상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을 연구자는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그룹 성찬과 같은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모호성, 돌봄의 사각지대, 소통의 단절, 전문성 부족, 규범화를 교회 공동체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대안을 찾아 실천하고자 할 때, 교회 공동체는 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기획해 본 소그룹 애찬(Small Group Agape Meal Planned by the Program Participants)

나는 소그룹 성찬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두 가지 고민을 갖게 되었다. 첫 번째는, 소그룹 성찬은 목회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대안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함께 한 소그룹 성찬은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계적인 구조를 극복하지 못한 대안이라는 점이다. 물론 연구자가 소그룹 성찬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그룹 성찬을 진행할 때 목회자인 진행자의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기획의도에 맞추어 소그룹 성찬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연구자가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의 지도 교수인 김남중 박사는, 목회자 없이도 성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그룹 애찬'을 실천적 대안으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부심 교수인 오현선 박사는, 교회나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서 소그룹 애찬을 진행하고, 그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받아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소그룹 성찬에 참여했던 프로그램 참여자 중 현재 CM(Class Meeting:속회)의 리더로 활동하는 [프로그램 참여자 G]와 [프로그램 참여자 I]를 선정하여, CM 에서 청년들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소그룹 애찬을 함께 기획하였고, 실제로 CM 에서 실행해 보았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 G]와 [프로그램 참여자 I]가 소그룹 애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고민과 소그룹 애찬을 실행한 이후의 생각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다.

나는 소그룹 애찬 준비모임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 G]와 [프로그램 참여자 I]에게 본 프로젝트의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특별히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한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CM에서 소그룹 애찬을 진행할 때, 모호성의 갈등, 돌봄의 사각지대, 소통의 단절, 전문성 부족, 규범화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프로그램 참여자 G]와 [프로그램 참여자 I]와 목록을 함께 작성하였다. 또한 작성한 고려사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범주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내용들을 통합하여 소그룹 애찬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표 10>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작성한 소그룹 애찬 운영지침

범주	내용
모호성의 갈등	〈고려사항〉 내가 오늘 준비하는 소그룹 애찬은, CM 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성별/직업/신앙경력/가족사항/성향 등)들로 인해서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떤 점을 배려하고 있는가? 〈체크리스트〉 - CM 원을 나누는 사회적인 기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 CM 원을 묶는 공통점(예: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을 강조한다.
돌봄의 사각지대	〈고려사항〉 내가 오늘 준비하는 소그룹 애찬은, CM 원들이 모두 공평하고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점을 배려하고 있는가? 〈체크리스트〉 - 나눔 순서를 정할 때 지목 받지 못하는 사람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지목제는 지양한다. - 뽑기 또는 원하는 사람 순서대로 나눔 순서를 정한다.
소통의 단절	〈고려사항〉 CM 원들은 오늘 진행되는 소그룹 애찬의 시간과 장소, 준비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CM 원들이 오늘 소그룹 애찬의 경험(긍정적 혹은 부정적)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체크리스트〉 - 소그룹 애찬의 시간과 장소, 준비사항에 대하여 하루 전과 당일에 단톡방을 통하여 공지한다. - 개별적으로 소그룹 애찬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을 한다. - 부정적인 피드백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제작하여 익명으로 답변을 작성하게 한다.
전문성 부족	〈고려사항〉 나는 오늘 소그룹 애찬에서 각각의 CM 원들을 위해서 어떤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체크리스트〉 - CM 원들의 일상을 이해하기 위한 대략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한다. - CM 원들의 직업을 이해하기 위한 대략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한다. (예: 제과 제빵 관련 자격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검색해본다.)
규범화	〈고려사항〉 나는 오늘 소그룹 애찬에서 각각의 CM 원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어떤 순서 혹은 대화(멘트)를 준비하였는가? 〈체크리스트〉 - CM 원들 모두에게 개인의 일상(직장, 취업준비, 학교, 가족 등)을 고려한 개별 질문을 하나씩 한다. - 소그룹 애찬과 나눔을 진행할 때, '니가, 너의' 같은 표현은 지양하고 CM 원들의 이름을 불러준다.

연구자와 [프로그램 참여자 G], [프로그램 참여자 I]는 위와 같은 고려사항과 체크리스트 항목을 함께 만들고, 각자의 CM 분위기에 맞게 소그룹 애찬 진행 장소와 진행 방식을 결정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G]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K 교회의 소그룹실을 소그룹 애찬 진행 장소로 결정하였고, K 교회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CM 원들이 직접 고른 다양한 과자로 소그룹 애찬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I]는 K 교회 인근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31 매장을 소그룹 애찬 진행 장소로 결정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고른 아이스크림으로 소그룹 애찬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G가 진행한 소그룹 애찬〉



〈프로그램 참여자 I가 진행한 소그룹 애찬〉

[프로그램 참여자 G]의 CM 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여서 애찬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한 후 소그룹 애찬을 진행하였다. 반면에 [프로그램 참여자 I]의 CM 은 평소에 가벼운 대화를 주로 나누는 분위기여서 애찬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소그룹 애찬을 진행하였다.

<표 11>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기획한 소그룹 애찬 진행순서

[프로그램 참여자 G]의 진행순서	[프로그램 참여자 I]의 진행순서
1. 단톡방에 나눔에 대한 공지(주제 및 예시 설명) 2. 함께 편의점에 가서 각자의 간식 선택(고르는데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음) 3. CM 실에서 각자가 해당 간식을 고른 이유 나눔(차례는 원하는 순서대로 함) 4. 애찬의 의미에 대해 설명 후 애찬 실행 5. 간식을 먹으면서 다양한 주제(간식관련, 일상 등)로 대화 나눔 6. 마무리 기도 7. CM 종료 이후 CM 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오늘 모임에 대한 소감 질문	1. 단톡방에 장소를 공지 2. 베스킨라빈스 31 매장에 가서 각자 맛 선택(단, 현재의 자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맛으로 고르도록 안내) 3. 일상 나눔을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아이스크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시간 부여 4. 어느 정도 나눔이 진행된 후, 왜 자신이 그 아이스크림을 골랐는지 설명(원하는 사람이 먼저 나누고, 발표자가 지목하는 순서로 진행) 5. 마무리 기도 6. CM 종료 후 집으로 돌아가며 자연스럽게 오늘 모임에 대한 소감 질문

나는 [프로그램 참여자 G]와 [프로그램 참여자 I]와 함께 소그룹 애찬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생각의 변화, 소그룹 나눔 내용, 그리고 소그룹 애찬을 경험한 CM 원들의 피드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였다. 이어서 3일 뒤에 [프로그램 참여자 G]와 [프로그램 참여자 I]를 직접 만나 식사를 하며, CM 에서 직접 진행했던 소그룹 애찬의 경험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대화를 나누었다.

[프로그램 참여자 G]

그 동안 다양한 또래, 다양한 상황의 CM원들이 나눔을 할 때, 개개인이 가진 상황, 배경지식, 흥미 등에 따라 대화의 이해도나 참여도가 차이가 있음을 느꼈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끝에는, 항상 '어쩔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던 것 같아요. 이번 소그룹 애찬을 준비하면서 '편안함의 극대화'와 '이질감의 최소화'를 위한 고민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모두가 편안하고 공감 받는 CM이 되기 위한 고민을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애찬'이라는 소재 자체가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는 CM원들을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았고, 이를 강조하면 평소의 CM나눔에서 느끼는 이질감, 생소함 등을 덜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CM원들에게 애찬의 의미를 최대한 전달하고, 구성원들끼리 '다른 부분'이 아닌 '공통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했어요.

[프로그램 참여자 I]

CM원들이 자신의 나눔을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애찬)가 생겨서 나눔을 하는데 있어서 평상시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저희 CM에는 어린 또래의 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진행하는 순서를 결정할 때 '규범화'가 강조되지 않게 하려고, 자발적으로 순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CM구성원들이 각자 다른 직업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소통에 어려움은 있지 않을지에 대해 고려했고, 최대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눔에 있어서 중립적 위치로서 부연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앞으로도 CM을 진행할 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프로그램 참여자 G]와 [프로그램 참여자 I]와 함께 소그룹 애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중요한 의식의 변화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연구자는 확인할 수 있었다. 소그룹 애찬을 경험하기 이전에 [프로그램 참여자 G]와 [프로그램 참여자 I]는 CM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CM 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계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소그룹 애찬을 직접 기획하면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의 관점으로 CM 구성원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이 CM 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G]와 [프로그램 참여자 I]는 앞으로 CM 을 진행할 때,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CM 구성원들을 바라보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겠다는 다짐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함께 소그룹 애찬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K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호성, 돌봄의 사각지대, 소통의 단절, 전문성 부족, 규범화로 인해 청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단기간 준비하여 제한적인 인원이 참여한 소그룹 애찬이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소그룹 애찬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관점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었고, 환대 공동체를 향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본 프로젝트에 매우 고무적이다. 한국 개신교 교회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공감하고 수용하려는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이를 위한 교육과 실천이 확대된다면 한국 개신교 교회는 환대를 지향하고 경험하는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V

결론 (Conclusion)

한국 개신교 교회는 젊은 세대 감소에 대한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 교회의 젊은 세대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92] 한국 개신교 교회는 과거보다 더 좋은 교회 환경과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들을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점차 교회를 떠나고 있다. 나는 K 교회에서 교회학교 4년, 청년부 7년간 사역하며 이러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 기독교계와 교단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디지털환경과 미디어의 영향, 인본주의, 개인주의, 과학적 세계관 등을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줄어드는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현상들 이면에 조금 더 본질적인 원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DSLR(Digital Single-Lens Reflex)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DSLR 카메라는 렌즈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렌즈를 교체하며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본체(Body)를 가지고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더라도 어떤 렌즈(Lens)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카메라 본체를 가지고 있지만, 렌즈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

92 "인구 특성별 개신교 인구 변화 추이," 목회데이터연구소, last modified January 16, 2024,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8&page=2.

구분	1998년	2012년	2023년	증감(2023-2012)
전체	20.7%	22.5%	16.6%	-5.9%p
19-29세	20%	19%	9%	-10%p
30-39세	19%	21%	11%	-10%p

지난 3년 간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D. Min.)과정은 그동안 내가 고민하며 갈등하던 목회적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렌즈를 갖게 해주었다. 청년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서 구분 기준과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재가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나는, 이러한 현상을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청년들은 교회에서, 특별히 부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식민주의적 억압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러한 억압으로 인한 갈등은 청년들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교회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해결방안들은 오히려 더 큰 억압과 갈등을 가져올 뿐이었다. 나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청장년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는 청년들의 공통된 특별한 경험을 경청하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는 K 교회 청년들은 자신들이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지 모르는 불안함, 청년부 때와 같이 충분한 신앙적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함, 청장년부에 소속될 수 있는 기준에 들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K 교회의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이 교회가 정한 부서 구분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소외감을 느끼거나 위축되는 마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견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서 이동이 결정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들의 결혼관이 다변화하고 있고, 결혼 시기가 다양화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결혼하여 K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라는 부서 구분 기준은 모든 청년들에게 적용되기에는 모호한

기준이다. 이러한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서 35세 이상의 비혼자, 이혼자, 비혼주의자, 배우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부,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들은 적절한 목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블라인드 그룹이 되었다. 이들은 청년부나 청장년부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으며, K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암묵적으로 제외되는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년들은 교회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의견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차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된 목회적 돌봄을 교회가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청년-청장년들의 공통된 특별한 경험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K 교회에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는 30~40세의 성도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근거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6개의 유의미한 진술과 13개의 주제,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5개의 범주는 모호성의 갈등, 돌봄의 사각지대, 소통의 단절, 전문성 부족, 규범화였다. 나는 도출된 5개의 갈등과 어려움을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관점, 특별히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다섯가지 억압 이론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이어서 차이로 인한 차별을 넘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환대 신학적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나는 지난 7년간 K 교회의 청년부를 목회하면서 '정시기도'[93]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 매일 밤

---

[93] '정시기도'란, K 교회 청년부가 매일 밤 10시에 문자를 통해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이다. K 교회 청년부는 매일 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있는데, 나는 지난 7년간 정시기도의 첫 번째 기도제목으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제목을 청년들에게 전달하였다.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기도제목을 나누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작 예수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성찰이 없는 막연한 구호 같은 외침이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예수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제도화된 종교가 아닌 일상 속에서의 사랑, 연대 그리고 환대를 실천하는 삶이었다.

교회는 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려고 한다. 하지만 예수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자의 얼굴을 숫자가 아닌 진정한 고유성을 지닌 '얼굴'로 바라보는 '연민적 시선'을 갖춰야 한다.[94] 예수의 타자를 향한 연민의 시선은 한 개별인을 제한하는 국가적 경계나 종교, 인종적 경계, 나이, 직업, 성별적 조건들과 경계들에 대한 편파성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를 중심에 놓고 형성된 기독교의 핵심은,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과 환대를 최상의 가치로 가르치고 실천해야 하는 공동체적 책임 안에서 그 존재의 유의미성이 확보된다.[95] 예수의 가르침에 있는 핵심은 타자들과의 '함께-살아감'이다.[96] 예수는 자신의 삶에서 직접 보여주었듯이 다양한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 환대, 책임, 사랑의 삶을 따르라고 하고 있다.[97]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는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전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타자에게 베푸는 무조건적 환대의 예를 보여주었다. 나는 이러한 예수의 삶을 통해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

[94]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61.
[95]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48.
[96]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49.
[97]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51.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억압과 갈등, 그리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소그룹 성찬'을 기획하여 실행하였다. 다양한 조건을 가진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경험을 통해서 식민주의적 억압과 차별을 극복하고 환대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서로의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고, 서로의 차이가 불편함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사실 나는 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결혼을 기준으로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나누는 K 교회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부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이를 기준으로 부서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에 맞추어 교회가 다양하고 세분화된 부서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생각에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나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특정한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부서를 구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다양한 조건의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환대의 가치관을 교육하고, 환대의 경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환대의 가치관이 예배와 교육, 소그룹, 프로그램, 교제의 시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는 노력이 있을 때,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있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히 나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의 관점으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공통된 특별한 경험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의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나는 7년간 K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청년들을 위해 어떤 목회적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청년들을 위해 어떤 설교를 하고, 청년들을 위해 어떤 강의를 하고, 청년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항상 고민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프로젝트 역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목회적 돌봄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적 돌봄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차별, 그리고 억압과 소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질문하고, ‘함께’ 치유하는 협력적 과정이라는 것을 나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었다. ‘위해’를 넘어 ‘함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본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 과정에서 나에게 일어난 목회적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갈등에 집중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교회 공동체와 한국 개신교 교회, 더 나아가 한국 사회와 세계가 직면한 갈등까지 폭넓게 바라보도록 확장시켜 주었다.

본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실천적 대안으로 ‘소그룹 성찬’과 ‘소그룹 애찬’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제안된 프로그램은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상징적인 대안일 뿐이다. 프로그램 자체보다 그 프로그램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것 자체보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협력하고 기획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 사역을 기획하고 시행할 때 모호성의 갈등, 돌봄의 사각지대, 소통의 단절, 전문성 부족, 규범화 극복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한다면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를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의 시각을 점검하는 이정표가 된다면,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이 경험하는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K 교회라는 특정한 공동체, 그 중에서도 10명이라는 제한된 연구 참여자들과 10명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 교회

모든 청년들의 경험을 대변할 수는 없다. 또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환대의 신학이라는 특정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연구 내용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청장년부의 사역이 아직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K 교회의 성도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내용이 다소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교회, 특히 청장년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연구 참여자로 초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통해서 한국 개신교 교회 청년들이 청장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더욱 다각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대형화된 조직을 원활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특정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유효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수 많은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을 주변인으로 만들어 교회의 문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하지만 아모스 용(Amos Yong)은 “기독교 선교란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98]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외인으로 이 세상에 보낼 정도로 환대를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예수가 죄인들,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환대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환대의 은혜를 경험한 기독교인들은 이제 ‘환대의 대리인’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나는 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들이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보다 환대를 지향하고 경험하는 ‘함께-살아감’의 공동체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98] Jipp,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환대와 구원,* 179.

부록 I : 연구 참여 동의서

Appendix I: Informed Consent Form

귀하는 “한국 감리교회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환대 신학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관점과 실천신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하의 연구논문에 참여합니다. 이 연구는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0497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의 김남중 교수(njkim@cst.edu/646-712-****), 오현선 교수(hsoh@cst.edu/010-****-****)의 지도아래 홍성찬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개신교 교회의 젊은 세대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K 교회의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성과 환대를 지향하는 목회 돌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K 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한국 개신교 교회의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잘 이동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회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인터뷰에 약 1시간 가량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 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될 것입니다. 녹음되는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연구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할 것입니다. 연구가 마쳐진 후에는 해당 내용을 모두 파기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에만 보관되고, 연구 종료 후 폐기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이름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 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홍성찬의 전화번호(010-****-****) 혹은 이메일 주소(sungchan.hong@cst.edu)로 연락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24-005〕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010-****-****, 혹은 viastar@hanmail.net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참여자의 서명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 참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기록을 위하여 이 문서의 사본이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부록Ⅱ : 소그룹 성찬식 순서지

Appendix Ⅱ : Order of Service for a Small Group Eucharist



"환대의 식탁" 순서

환영의 시간 -- 다같이

인사말 --- 사회자

서로를 듣는 찬양 -------------------------------------- 다같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단음→화음→화음)

서로를 듣는 말씀 ----------------------------------- 한 사람씩

성찬의 이야기 -- 사회자

서로를 듣는 찬양 -------------------------------------- 다같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화음→화음→단음)

환대의 식탁 -- 다같이

닫는 기도 -- 다같이

사랑의 주님, 우리를 다양하게 빚으시고 한 식탁에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환대와 연합의 은총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다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서로를 품고 걸어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세상에 평화와 희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과 인사 -- 사회자

[서로를 듣는 말씀]

(갈라디아서 3:28~29, 메시지성경) 그리스도의 집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은 모두 평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니,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13, 메시지성경) 이제 우리 각 사람은 부활하신 그분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의 같은 샘-그분의 영-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전에 우리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낡은 꼬리표들-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 종이나 자유인 같은 꼬리표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크고 보다 포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9:33~34, 메시지성경) 외국인이 너희 땅에서 생활할 때에 그를 착취하지 마라. 외국인과 본국인을 동등하게 대하여라. 그를 네 가족처럼 사랑하여라. 너희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로마서 12:14~16, 메시지성경) 원수에게도 축복해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척 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히브리서 13:1~2, 메시지성경) 서로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으로 화합하십시오. 식사나 잠자리를 구하는 이가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해주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환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35~36, 메시지성경)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방을 주었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문병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면회를 왔다.

(베드로전서 4:9~10, 메시지성경)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냅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나누어, 모두가 그 덕을 보게 하십시오.

(에베소서 4:3~4, 메시지성경)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4, 메시지성경) 우리 각자는 사람 몸의 다양한 부분과 같습니다. 각 부분은 전체 몸에게서 의미를 얻습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몸은, 택함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그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입니다.

(마태복음 11:28, 개역개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꽃말 설명

1. **빨강 장미** : 진실한 사랑과 열정
2. **노랑 장미** : 우정과 따뜻한 마음, 질투의 마음
3. **하얀 장미** : 존경의 마음
4. **선인장** : 견고함과 인내
5. **파랑 카네이션** : 기분이 변덕스러움
6. **보라 카네이션** :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
7. **흰색 카네이션** : 고인에 대한 추모와 평안
8. **과꽃** : 성취의 기쁨과 보상
9. **마트리카리아** :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
10. **소국** : 소박하고 진심어린 마음

부록 Ⅲ: 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

Appendix Ⅲ: Feedback on this Research Project

	내용
연구 참여자 A	본 연구는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실태와 격동하는 변화 양상을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한 결론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과 감정적 몰입 등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고자 콜라이지(Paul F.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실제 해당 방법론 중 '주제 묶음(clusters of themes)'은 계량적 연구의 '요인 분석(factor analysis)'과 유사한 형태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보조적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유사 주제의 선행 연구 분석을 시행했는데, 이는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방향에 기초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다섯 가지 억압 이론과 관련된 해석 내용은 연구 참여자 10명의 주관적 경험을 이론적 타당성에 기반하여 연계하여 해석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본 연구의 대안으로 제시한 소그룹 성찬은 다양한 구성원이 단일한 그룹에서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 비교적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며, 논문 심사위원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기존 교회 내의 위계적 질서에 거부감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매우 가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시스템 유지를 위한 거시적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개별 교인들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점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지향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연구라고 판단된다.
연구 참여자 B	본 연구는 K 교회가 현재 겪고 있는 청장년부로 소속을 이동하는 과정 중 청년층의 교회 이탈현상에 대한 현상의 원인을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하고, 이에 대한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저는 청년에서 청장년부로 편입되어 적응해 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당사자로서 K 교회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해당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청장년부로 편입되어 적응해 가는 당사자로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 느껴집니다. 특히, 연구자가 제시한 해결 대안이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는 개인이 경험한 구체적 사례와 솔직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총 5 개의 범주인 '모호성의 갈등,' '돌봄의 사각지대,' '전문성 부족,' '소통의 단절,' '규범화'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과도기를 겪는 대상자들이 느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라는 이론적 관점을 통해 평면적이고 단순한 방법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해결 대안인 '소그룹 성찬' '소그룹 애찬'이 교회가 구분 해놓은 경계를 허물고, 더 나아가 연합으로의 변화 가능성으로 제시된 점이 인상 깊습니다. 이를 통해 청장년부로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 중에 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점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필수적인 소그룹 성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목회자의 역할을 배제한 '소그룹 애찬'은 교회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관점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환대 공동체를 향한 기대를 갖게 하는 치유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있어 창의적인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자가 언급하였듯이 K 교회가 청장년부의 사역이 아직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교회인 점, 따라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내용이 다소 부정적으로 치우친 점은 다소 아쉬우나, 그렇기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한국교회는 물론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본 연구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함께-살아감'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적 역할 회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진지하게 탐구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신 연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구 참여자 C	10 명의 다양한 청년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과 분석을 통해 총 13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이를 다섯가지 억압 이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또 환대적 신학 공동체로 대안을 제시한 점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아울러, 연구자의 기존 시각이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 신학의 개념을 통해 7 년간 무뎌진 그의 시선이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두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도 공동체 회복에 대한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을 계기로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결혼이라는 틀을 넘어 공동체와 교회의 구조적 한계를 잘 드러냈습니다. 사실, 많은 청년들이 결혼이나 연령의 변화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의 이탈을 개인의 선택이나 교회의 과제로만 치부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블라인드 그룹'에 속한 교인들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고, 소그룹 성찬이 지닌 환대의 효과를 조명하며, 나아가 '함께-살아감'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한국 개신교 청년들, 목회자들, 그리고 '연민적 시선'을 잃어버린 많은 교회 공동체에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연구자와 참여자가 동일한 K 교회에 다닌다는 점은 그들의 상호작용과 친밀도를 명확히 보장해 주었으며, 참여자들의 면담 진행 환경에 대한 설명은 주요 자료인 면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면담자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연구자의 노력은 본 연구를 읽는 동안 몰입도를 높이고 공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7 년 동안 공동체를 섬긴 한 목회자가 고민한 문제를 바탕으로 시작된 이 연구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분석하며 그 원인을 탐구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이탈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구조적 문제, 특히 식민주의적 억압과 차별의 잔재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때, 교회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대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개신교의 본질적인 목적이자 핵심인 그리스도의 환대적 사랑이 더 많은 개신교 공동체로 흘러가기를 바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E	이 논문은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현상'을 연구하면서, 한국 개신교를 향해 탈규범화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본인은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로 참여를 하면서도, 논문을 읽고 피드백을 하는 지금도, 한국 교회의 현실을 마주하는거라 아팠다. 한국 개신교 다수의 신앙인들은 그들이 만든 거룩과 율법의 패러다임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가둬 놓으려고 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의 형태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연구자는 이 연구의 실천적 대안으로 우리에게 환대신학을 제안한다. 그가 마련한 성찬과 애찬은 서로의 다름이 서로에게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가치를 풍성하게 해준다. 연구자가 말한대로 환대의 경험은, 교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경계선들을 지우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되게 하는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연구 참여자 F	“젊은 세대의 감소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중 한국 교회가 정의하는 “집단,” “그룹화,” “공동체”가 “개인”에게 어떤 한계를 띄는지 논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청년부 소속의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인데, 이 연구를 통해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목회자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공감해준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고, 연구를 읽으며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학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연구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소그룹 성찬과 애찬을 통한 실천적 대안은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론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용성이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소그룹 애찬을 주도한 경험 공유는 개인적인 도전과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집단을 구분해야 하는가? 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의 소속이 어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서, 더 나은 교회 문화가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 G	언젠가는 청장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청년으로서 인터뷰를 할 때와 논문을 읽을 때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연구 참여자이면서 동시에 청중이었기 때문에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는 온전히 저의 생각만을 표현하였지만, 논문을 읽을 때는 한 명의 청중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연구자의 분석을 통한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심도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는 청년들이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넘어갈 때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로그램과 명확한 부서 구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지만,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통해 그것이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특별히 인터뷰를 진행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판단 중지 항목을 작성하여 선입견에 빠지지 않도록 한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사고가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환대가 청년들이 청장년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저는 환대가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넘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가치관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 그룹이 비단 청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청년 이외의 다양하게 소외되어 있는 그룹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를 환대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환대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결국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제안한대로 환대의 가치관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미리 환대를 경험한 이들이 소외된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환대를 실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구자는 환대의 방법을 성찬식이나 애찬식의 모습으로 제안하였지만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환대가 이루어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나 애찬식은 최소한의 진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번 진행하며 지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환대를 연구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연구 참여자 H	본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라는 용어였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문을 읽기 전에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였는데, '탈식민주의'라는 의미의 용어였다. '탈식민주의'가 목사님께서 연구하시는 주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하며 논문을 읽었다. 논문을 읽던 중 탈식민주의 관점에 입각해 다섯가지의 억압 이론에 빗대어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느끼는 감정을 연관 지어 설명하였는데, 그 해석이 좀 과격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흥미로웠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교회공동체에 대한 'Needs'를 '환대'라고 표현함으로써,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원활히 이동하기 위해 교회공동체의 환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이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수월했다. 본 논문을 통해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이동할 시기에 직면한 연구 참여자들의 솔직한 감정과 의견들을 알 수 있어서 새롭고 흥미로웠다. 또한 연구 방법으로 질적연구방법을 채택하여서 연구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K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한국 감리교회 전체가 맞닥뜨린 현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관점이 너무 확대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연구 참여자 I	이 논문은 한국 감리교회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연구와 환대 신학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관점과 실천을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흥미롭게 읽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모호성의 갈등, 돌봄의 사각지대, 전문성 부족, 소통의 단절, 규범화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정리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교회 내 청년과 청장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면담을 통해 잘 분석하고, 교회 내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함께 고민해보면서 감리교 또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또한 환대 신학의 관점에서 소그룹 성찬과 소그룹 애찬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실천해봄으로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연구해본 점은 매우 흥미롭고 기독교가 가져야 할 나눔의 모습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만, 개인주의가 치닫는 이 사회에서 목회자 또는 리더 중심의 환대의 관점에서 성찬과 애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시간적 물질적 헌신을 통해서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야만 이런 환대적 정신이 기독교 안에 널리 퍼질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편성에 대해 아쉬운 점은 논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K 교회 한곳만을 선택하여 감리교 전체와 한국 교회 전체 청년들이 청년에서 청장년으로 지나가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상황과 생각들에 대한 수집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었습니다. 논문 작성 이후에도 여러 다른 감리교와 청년들이 나이 혹은 결혼을 기준으로 청년과 청장년으로 나누는 기준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은 의견들과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청년 혹은 청장년이 교회를 떠나거나 방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연구 참여자 J	교회에서 청년으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청년부 이후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참여하고, 다양한 참여자분들의 의견과 실질적인 제안을 접하며 결론을 읽으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어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넘어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고,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터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모호성에 따른 갈등, 돌봄의 사각지대, 소통의

	단절 등의 문제를 연구를 통해 하나하나 분석해 주셔서, 그동안 막연히 생각만 했던 부분들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교회의 공동체를 경험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려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연구에 참여하고 논문을 읽으면서 저의 부족함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논문에서 인용하신 “기독교 선교란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문장이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그룹 애찬 모임을 통해 갈등을 치유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환대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결론을 보며, 이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환대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청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를 연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G	나 또한 K 교회에서 청소년기, 청년시기를 보낸 사람으로서 연구의 배경이 된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고민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청년부 선배들에서부터 내 친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나도 언젠가 겪을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의 발견과 지적은 청년들에게는 위로와 공감이 되며, 목회자에게는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관점에 입각하여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다섯 가지 억압 이론의 관점으로 해석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은 ‘착취,’ ‘주변화,’ ‘무력함,’ ‘문화제국주의,’ ‘폭력’의 개념에 대응되었고,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교회공동체 안에서 억압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연구자가 제시한 다섯 가지 범주 ‘모호성의 갈등,’ ‘돌봄의 사각지대,’ ‘전문성 부족,’ ‘소통의 단절,’ ‘규범화’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환기시킨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실천적 방안인 ‘소그룹 성찬’과 ‘소그룹 애찬’은 매우 효과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나에게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불편함이나 거리감이 아닌 편안함, 안전함, 따뜻함, 흥미로움을 느꼈다. 동시에 이러한 고민을 더 많은 목회자, 소그룹 리더, 소그룹 구성원이 같이 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자가 논문의 청중을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청년-청장년 성도로 지목하는 바와 같이 모든 주체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 외에 교회 조직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운영의 효율과 편의 측면, 개별화된 욕구 측면 사이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각

	주체들의 진지한 고민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심도 있는 탐구를 통하여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는 청년들의 이탈 해소 방안을 넘어 한국 교회와 성도가 지향할 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논문이었다. 깊은 공감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논문을 읽게 되어 감사하다.
프로그램 참여자 I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라는 단어에서 '탈'이란 접두어가 '~을 넘어서는'이라는 극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지만,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극복의 의미가 아니라 극복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변화에 대하여 체념해 있는 상태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미 규범화돼 있는 환경 속에서 나이, 환경, 결혼의 유/무가 각자 다른 청년, 청장년들의 말을 보고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 단순히 결혼의 유/무로 청년과 청장년을 나누는 K 교회와 반대로 사회는 나이로 청년을 규정하는데, 청년과 청장년의 분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세분화하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교회의 상황이 많은 청년과 청장년들에게 주변화, 무력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다. 교회가 베푸는 '환대의 현장'에 있지만 동시에 '적대의 현장'속에도 있다는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된다. 나아가 몇 년 후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진다. 나 또한 현재 교회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면 가족이 다녀서, 오래 다녀서라는 마음만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알아볼 것 같았다. 이번에 실천적 대안으로써 환대의 관점으로 보는 성찬은 상당히 흥미로웠다. 예수 안에서 출신, 계층,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서로 다른 모든 이들을 공감하고, 생각을 들으며 예수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서로의 다름은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재료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소그룹 애찬의 진행자가 되어 진행한 소그룹 애찬은 이렇게까지 공동체에 대해서 무언가를 고민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그룹 애찬에 참여한 동역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말이 우리 공동체가 환대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소그룹 애찬이 단기간으로만 보았을 때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자, 해결책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갈등과 불화를 겪는 청년과 청장년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지금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을 치유할 수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또 소그룹 애찬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갈등마저도 폭넓게 바라보아 끊어짐 없이 하나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목회자 A	저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K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기에, 연구자의 실제적인 고민과 그 과정이 더욱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익숙해져 있던 K 교회의 문화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사역의 어려움’이나 ‘교회 구조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교회는 과연 누구를 품고 있는가?”라는 것은 저에게도 다시 새길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맡겨진 역할과 보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사역한다고 했지만 그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였을 영혼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나온 다양한 답변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혼란과 답답함을 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논문이 제안하는 ‘소그룹 성찬’과 ‘애찬’의 방식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가치의 회복을 제안한다고 느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평등적 구조 등 한국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보였습니다. 이 논문은 단지 학문적 성취를 넘어, 동료 목회자에게도 큰 도전과 질문을 던져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교회의 소외된 또는 소외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듣고자 한 홍성찬 목사님의 시도에 깊은 존경과 지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 교회와 섬기는 교회 공동체마다 연결과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동료 목사로서,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료 목회자 B	청년들이 청장년으로 이동하는 그 짧은 순간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와 갈등, 상처와 희망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다뤄졌던 ‘청년부 → 청장년부’라는 흐름이, 이 논문 안에서는 한 사람의 신앙 여정 안에 있는 경계의 공간으로 깊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단순한 현상 파악을 넘어, 그 이동의 경험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환대 신학’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라는 두 축을 통해, 청년이 겪는 소외와 긴장, 환대의 부재와 그 회복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교회 구조와 문화 속에서, 후속 세대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때로는 외롭게 적응해 가는지, 인터뷰 참여자들의 고백을 통해 가감 없이 전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깊이 공감했던 대목은, ‘정체성의 혼란’과 ‘기대와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청장년부로 갔지만, 여전히 청년으로 남아 있고 싶은 마음.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는 자신에게 이미 “기대되는 역할”을 투사하고 있다는 불편함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 역시 그 장면들을 여러 번 마주했기 때문에, 단순한 연구를 넘어 공동체의 자화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 감동한 것은, 단지 문제를 분석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신학적 상상력과 실천적 제안을 함께 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그룹 성찬과 애찬이라는 제안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환대의 실천이자, 신앙의 회복을 위한 감각적인 공간 기획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청장년부가 청년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세대 전환의 과정에서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청년 및 청장년 사역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의 이동'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품어낼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의 사역에서 청년과 청장년의 '경계'에 놓인 이들을 더 민감하게 돌아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움직이는 사람들'을 향해 일방적인 구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정에 맞춰 함께 이동해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 논문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료 목회자 C	"우리 자녀(아들이 또는 딸이)가 청소년(청년)때 까지는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지금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교회에서 장년들을 심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땅히 답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 목회자로서도 항상 막연하고 어려운 문제였고, 고민은 되지만 딱히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문제제기와 연구 참여자들의 진솔한 이야기 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솔직하게 나도 목회자이지만 성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어려웠고 두려웠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와 거리감을 두게 하는 잘못된 방향성임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잘 소통하는 것이며, 이를 환대라는 개념 안에서 풀어갈 때 그 가로막힌 담도 허물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좋은 목회의 방향성과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수처럼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식탁을 나누며, 신앙적 고민을 공감하는 것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역일 것이다. 앞으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성도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서로 담을 헐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좋은 연구와 논문을 작성하고 소개해주신 홍성찬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동료 목회자 D	이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교회 안에서 청년 수가 감소하고, 기존 청년들이 교단의 규칙에 따라 청장년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불안, 이동 규정에 대한 불편함과 혼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어 목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블라인드 그룹'의 존재를 포착한 것은 매우 유익한 발견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한국교회가 반드시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보입니다.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겪는 문제들을 '모호성의 갈등,' '돌봄의 사각지대,' '전문성 부족,' '소통의 단절,' '규범화'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이 청장년부로 부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복합적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분석으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지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는 단순히 청년부와 청장년부의 구분 기준을 재정립하거나, 더 나은 신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면서 겪는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곧 '공동체적 환대'의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연구자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박사 과정 수업에서 성찬을 매개로 서로 다른 삶을 환대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소그룹 성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였고, 이를 통해 '제 3 의 공간'으로서의 소그룹 성찬의 가능성을 탐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의 피드백은, 얼굴은 알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 없는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느끼던 불편함이 해소되었음을 보여주며,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경험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목회자 없이도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소그룹 애찬'을 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목회자 중심의 돌봄을 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교회 전체가 환대를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성찬은 환대의 한 방식이지만, 그 경험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환대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학적·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table>
<tr><td></td><td>물론 연구자가 지적했듯,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면서 겪는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 상징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환대하는 공동체로서의 본래적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청년부와 청장년부라는 교회 내 다음세대 연계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험을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깊이 있게 탐구한 연구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훌륭한 논문을 읽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td></tr>
<tr><td>동료 목회자 E</td><td>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현재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에 더욱 공감이 되었다. 감리교 법제에 따라 청장년부로 이동해야 하는 청년들이 가지게 될 문화적 충격과 박탈감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으로는 시대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나이로 제한한 법제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갖게 된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를 구분하고 선정하는 것에 중요성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구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청년부를 오랜 시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참여자를 연구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연구의 질을 높였다고 생각된다.

24 페이지에 〈표 5〉 그림을 통해 문제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표 5〉의 그림을 인식하고 글을 읽음으로 필자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풀어나가는 내용이 더 쉽게 이해되었다. 또한 다섯 가지 문제점(모호성의 갈등, 돌봄의 사각지대, 전문성 부족, 소통의 단절, 규범화)을 해소할 방안으로 ‘소그룹 성찬’을 제안한 것이 인상깊었다.

또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수업 중 경험한 특별한 성찬식을 통해 환대를 경험하고 이를 실제 목회에 적용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였다. 그리고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의 의미를 구현한 성찬식을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성찬식을 실행한 후 피드백을 받음으로 성찬의 실제와 연합, 성찬을 통한 환대의 경험을 나눈 부분이 인상깊었다. 그리고 오감을 활용하여 소그룹 성찬의 효과를 높인 것도 인상깊었다.

마지막으로 규범화가 개별성을 무시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커지게 되었다. ‘소그룹 성찬’을 통한 탈규범화의 경험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갖게 해 주었다. 이러한 기대감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들을 돌봄의 중심으로</td></tr>
</table>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교회가 정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시스템 밖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제적 대안으로 '소그룹 성찬'이 교회 체질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동료 목회자 F	이 논문은 오랫동안 앓던 이(tooth)를 뽑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진작에 고민했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그냥 품고 지내왔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부모와 사회의 의무적 보호 아래 있었던 청소년기 이후 청년기는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누어지는 시기이다. 내가 자라던 때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학입학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장년 이전에 대학부와 청년부로 분리되어 있어서, 대입에 실패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블라인드 그룹이 되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 이 논문은 또 다시 청년부에서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라인드 그룹을 드러내면서, 교회의 오랜 문제를 비로소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심층면담을 분석하여 도출한 5 개의 범주는 청년부와 청장년회 중간 어디쯤에서 교회 떠날 결심을 하고 있는 그룹을 명시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존재 자체를 모호한 위치에 두었기에 교회가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조차 할 수 없었고, 그저 그들 스스로가 돌아와야만 한다는 무책임한 대응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타자화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은 여전히 목회적 돌봄 안에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K 교회를 넘어서 한국 개신 교회는 지금까지보다 적극적으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야겠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특히 이 논문이 청장년부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상징적인 대안임을 밝히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 사역을 기획하고 시행할 때 모호성의 갈등, 돌봄의 사각지대, 소통의 단절, 전문성 부족, 규범화 극복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한다면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환대를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기대가 독자인 내게도 큰 관심과 기대가 되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구 참여자들을 블라인드 그룹으로 범주화할 때, 그들 스스로 혹은 연구자가 위계질서를 전제로, 연구 참여자들을 하위 그룹의 위치에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제언한 실천적 대안이 교회의 변화만을 기다리는 의존적 바램으로 오해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 블라인드 그룹이 아니라 K 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되어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1차 자료]

한서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______. *데리다와의 데이트*. 파주: 행성B, 2022.

_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 경기: 동녘, 2018.

김광남. *교회 민주주의*. 파주: 비전북, 2022.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4.

______. *질적연구방법론Ⅱ: Mo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김지현, 박효엽, 이상환, and 황희숙. *탈식민주의의 얼굴들*. 서울: 역락, 2012.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경기: 살림출판사, 2006.

박흥순. *포스트콜로니얼 성서해석*. 서울: 예영B&P, 2006.

서경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23.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22.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연구*. 파주: 한길사, 2014.

이미나, 김동일, 김병남 et al. *질적연구방법*. 서울: 동문사, 2022.

영서

Aristotle.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Horsley, Richard A. *1 Corinthians, Abingdon New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8.

번역서

Gibbs, Graham R. *Analyzing Qualitative Data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Translated by 김종훈, 조현희, and 엄수정. 서울: 박영스토리, 2022.

Jipp, Joshua W.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환대와 구원: 혐오, 배제, 탐욕, 공포를 넘어 사랑의 종교로 나아가기.* Translated by 송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Russell, Letty.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Translated by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Stookey, Laurence Hull. *Eucharist 성찬, 어떻게 알고 실행할 것인가?* Translated by 김순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Sweet, Leonard. *From Tablet to Table 태블릿을 넘어 테이블로*. Translated by 장택수. 고양: 예수전도단, 2015.

White, James.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Translated by 김운용.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11.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차이의 정치와 정의*. Translated by 김도균 and 조국. 서울: 모티브북, 2017.

논문 및 저널

안덕원.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기독교 성찬: 혼종성(Hybridity)과 제 3의 공간(The Third Space)으로 구현하는 프롤렙시스(Prolepsis)." *복음과 실천신학* vol 38 (2016): 146-178.

이선영.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 수도권 교회의 20-30대 모태신앙을 가진 청년들을 중심으로." DMin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23.

이향순. "공감에 기초한 타자 지향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 논총* no. 60 (December 2019): 405-435.

전은성. "비혼 기독 청년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회 돌봄 실천: 포스트 식민주의와 상호의존적으로 접근하는 질적 연구." DMin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22.

함영주 and 이현철. "한국교회 청년들의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 요인 분석." *기독교교육논총* vol. 66 (January 2021): 209-241.

Foley, Edward. "Eucharist, Postcolonial Theory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Practical Theologian Revisits the Jesus T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Practical Theology* vol. 15, Issue 1 (August 2011): 57-73.

<u>웹사이트</u>

다음 백과사전. “비혼.” Accessed January 12, 2025.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420.

목회데이터연구소, “인구 특성별 개신교 인구 변화 추이.” Last modified January 16, 2024.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8&page=2.

통계청.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Last modified March 3, 202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Accessed November 17, 2024.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undefined.

KB국민은행. “KB청년희망적금.” Accessed November 21, 2024.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11087.

LH청약플러스. “청년 전세임대.” Accessed November 21, 2024. https://apply.lh.or.kr/lhapply/srch.do.

[2차 자료]

<u>한서</u>

김지현, 박효엽, 이상환, and 황희숙. *탈식민주의의 얼굴들*. 서울: 역락, 2012.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et al.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u>웹사이트</u>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Accessed November 15, 2024. https://kmc.or.kr/combination-resources/교리와-장정2023.

ChatGPT. https://chatgpt.com.

ClovaNote. https://clovanote.naver.com.